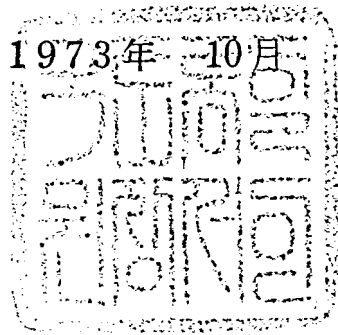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3年度 下半期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日

研究責任者 李 泰 永

目 次

序 言	3
1. 6.23 宣言의 意義	4
가) 6.23 宣言以前의 統一政策에 對한 反省	4
나) 6.23 은 새로운 統一政策의 構想인가?	7
2. 韓國民族의 特質	12
가) 民族理論의 一般論에서 본 韓民族	12
나) 東西獨의 民族論	21
다) 民族과 國民國家	26
3. <一民族 一國家 二政府論>과 國際社會	32
가) 一民族 一國家 二政府論은 同一民族 從屬感情의 終想이 아니다.	32
나) 國際法的 側面에서 본 一民族 一國家 二政府論	34
4. 統一에 對의 漸進策	43
가) 收斂理論에 立脚한 南北接觸의 展開	43
나) 南北對話와 四強關係	50
다) 內政改革과 統一外交	56
結 語	63

1) 序 言

一九世紀의 政治的 遺産인 < 国民國家의 理想 > 이 아직도 저버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分斷 祖國의 再統一을 解放後 지금까지 한결같이 念願하고 있다. 그러나 이 再統一問題는 韓民族의 自決에 依해서만 이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四強의 力關係와 깊히 얽혀있기 때문에 内外 要因의 調和 없이는 解決되지 않는 難題가 되어버린 것이다.

무릇 二〇餘年에 걸친 統一方案을 보면 別의 別것이 있었다. 分斷初期의 美소에 依한 統一方案에 이어 自由黨時代의 武力統一論, 進歩主義者들에 依한 中立化統一論, 제네바會議後의 유엔과 連結된 韓國統一論, 民主黨政府의 平和統一論, 現 共和黨政府의 段階的統一論 등이 있었지만 七.四聲明이 나오기까지 우리의 再統一 試圖는 아무런 實効를 못 거둔채 南北韓의 異質體利를 各自 鞏固化하는 結果밖에 갖어오질 못했었다. 客年의 七.四聲明後 南北間에 對話의 길이 열렸었지만 觀光團과 같은 數三次의 代表來往이 있는後 對話 中斷된 것이 오늘의 現實이다. 그래서 우리政府는 6.23 宣言을 통해서 안에서 막힌 對話를 밖에서의 誘導를 통해 이어 보려고 北韓을 國際政治의 広場으로 불렀지만, 北韓의 非協助的인 對應으로 이도 亦是 實効가 없는 오늘의 狀況이다.

그러면 七.四聲明을 내놓고도 왜 對話의 길이 막혔는가를 따져 보자. 그 理由를 밝혀 보면 複雜하지 않은 解答

이 나온다. 南北間에 体制의 異質性이 너무 老甚할 뿐더러 雙方의 基本的인 統一戰略이 <먹느냐 아니면 먹히느냐>式이기 때문에 對話의 進展이 없을 것은 自명한 것이다.

그래서 筆者는 6.23 宣言以後의 統一試圖는 새로운 次元에서 始作되어야 한다고 보고 本論稿에서 收斂理論 (Convergence Theory)에 立脚한 異質体制超克的인 長期接觸論을 展開해 본 것이다.

收斂理論이란 産業化社會의 時代概念과 함께 單一化해갈 産業社會의 未來像을 그린 段說인데 이는 單純히 戰後世界의 兩体制가 낳은 外形的 特色을 確認한 것에서 理論化된 것이 아니고 未來社會形成의 構造概念과도 얽켜 共通된 特性이 하나의 發展過程에서 力動的 交互를 격는바 同過程에서 두個의 社會体制는 結局 서로 分離해 나갈수 없을 程度로 變化물 이룬다는 것을 假定한 學說이다. 註1) 收斂理論家들의 特論에 依하면 東西紛糾는 体制超克的인 諸改革에 依해서 解決된다는 것이며 分斷民族의 再結合도 長期間에 亘한 体制構造의 收斂化와 等質化에 依해서만 可能하다는 것이다. 註2)

그래서 筆者는 同理論을 肯定的으로 받아드리기 때문에 우리 統一의 漸進策에 이를 適用하여 本論稿를 엮어본 것이다. 즉 筆者는 우리의 統一이 自由民主主義에 立脚한 國民國家의 建立이라는 所謂 <復古的概念>을 脫皮해서 <社會民主的인 韓國의 福裕社會>라는 새로운 概念에 立脚하여 長期試圖되기를 그린 것이다. 그리하여 第一章에서는 6.23 宣言以前의 統一政策에 對한 批判과 아울러 同 統一外交의 指針이 새로운 次元에서의 政策構想인가를 論해 보았고, 第二章에서는 Nation의 一般論에 立脚해서 韓民族의 特質을 糾明해 보았다. 그리고 第三章에서는 <一民族 一國家 二政府論>의 法的根拠를 解明해 보았으며, 第四章에서는 南北韓의 內的變換이 外

政的對立을 解消하며 나아가선 民族紛糾의 再結合을 可能케 한다는 것을 論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의 結語에서는 開放的인 統一政策이 젊은世代의 同調를 얻을 때에 비로소 總和體制는 鞏固해지고 統一에의 進一步가 있다는 見地에서 우리政府의 幅넓은 社會福祉政策을 懲適한바 있다.

本論稿가 한날의 抽象論에 不過하다면 當局諸位의 많은 叱責이 있기 바란다.

1) 6.23 宣言의 意義

가) 6.23 宣言以前의 統一政策에 對한 反省

南北에 各各 政府가 樹立되고 난後 歷代 우리政府(自由黨時代와 民主黨時代, 革命政府時代와 지금의 共和黨政府)는 우리의 外交政策을 對西方 특히 對美一辺倒로써 驅使해왔고 統一도 亦是 同外政에 準해서 試圖해왔다. 즉 우리는 72年의 7.4 聲明이 나오기 까지 對美一辺倒 外交로써 南北韓의 人口比例에 依한 總選舉 實施를 主張했고 이를 통해 完全한 內外政의 主權行使를 할 수 있는 統一政府를 이룩하려 했던 것이다. 同政策은 結局 西方一辺倒 外交로써 北韓에 影響力을 미치고 있는 소聯과 中共을 牽制하여 北韓을 解放시키겠다는 冷戰期의 單純한 統一戰略이였기 때문에 對北 妥協이란 語不成說이었다. 그래서 우리政府는 對北協商을 全的으로 外面했고 反共을 國是로 내걸었으며 單獨代表權으로써 國際政治에 있어 兩韓論의 擱頭를 徹底히 封鎖했던 것이다. 勿論 우리政府는

7.4 声明以後에도 對話는 持續하면서 지금도 单独代表權은 繼續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南北關係가 어떠한 法的形態로 規制되지 않았기 때문에 行해질 뿐이지 南韓 官民의 我田引收格인 慾求는 아닌 것이다.

南北對話의 길을 열어준 歴史的인 7.4 声明이 北의 非協助的인 対応으로 因해서 奏効하지 못하고 對話의 길이 막히자 우리政府는 6.23 宣言을 내고 北을 國際政治의 広場으로 끌어낸 現時点이지만, 7.4 声明과 6.23 宣言의 意義를 밝히기에 앞서서 筆者는 먼저 保守·非合理的이었던 우리의 二〇年 統一政策이 왜 이 땅에서 오래 適用되었든가를 指摘하고 넘어 가련다. 그 理由는 아래와 같은 몇가지가 아닌가 한다. 첫째 從來 우리의 統一政策은 冷戰時代의 美国 对共政策과 一致되었든 때문이다. 이미 周知의 事實이지만 冷戰時代의 对共戰略이란 共產主義에 依해 抑圧당하고 있는 諸民族을 解放시키는 同時에 共產主義를 抹殺하겠다는 強硬한 것이었다. 둘째로는 冷戰体制의 構築以後 우리의 南北은 同族相殘을 벌여 서로 極限的인 敵對感情을 지녔든 對立狀態였다. 세째는 偏狹하고 非妥協的이었던 同政策이 小數의 社会的, 政治的크럽의 利益에 違背되지 않았든 点이다. 네째는 統一을 念願하는 健全한 国民輿論이 온전히 反映되지 않는 非民主的 民主主義体制과 政治霧困氣가 이 땅을 支配하고 있었다는 点이다. 다시 말하면 非民主的이고 權威主義的인 政治크럽이 南北韓의 國家的實在를 認定하지 않는채 全民族의 政治的 要求를 国民國家的 再統一에 얽어놓고 西方側의 軍事

的勝利만을 期待했었다는 事實이다.

그러나 現政府는 從來의 保守派政府와는 달리 解氷무드속에서 進展되는 緊張緩和의 國際情勢를 外面하지 않았으며 民族分斷을 合理的인 漸進的方法으로 打開하려고 眞摯하게 試圖했으며 또 지금도 試圖하고 있다. 즉 同一民族이니만큼 思想과 理念을 超越해서 統一에 對의 對話를 나누어보자는 7.4 聲明도 果敢한 것이었고 또 一年間의 南北對話가 北의 革命戰略的인 對應으로 膠着狀態에 빠지자 이를 國際政治의 廣場으로 誘導한 6.23 宣言도 世界輿論의 肯定的인 共鳴을 얻은바 있는 아주 果敢한 것이었다. 6.23 宣言의 全七個 項을 보면 國際政治의 廣場에서 南北이 어느 面에서는 民族統一을 爲하여 協同하고 어느 面에서는 善意의 競争을 하자는 다짐이 如實히 들어나있다. 同宣言文의 文尾에 다만 “統一을 이룩하기까지의 過程에서 우리는 北韓을 國家로 認定치 않는다”라는 但書가 붙어 있으므로서 우리政府의 態度表明에 函縮性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南北의 諸關係가 條約化되지 않은 現段階로써는 當然한 言明이기도 한 것이다. 勿論 同但書條項을 nega브한 觀點에서 解釋할 수도 있다. 例컨대 南韓은 對話를 進展시키면서도 大韓民國만이 韓半島의 正統政府임을 頑強하게 固執하며 또 繼續 单独代表權을 主張하려는 底意를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있다. 그러나 同事實은 南北이 서로 一民族 一國家論을 내세우고 있는 現時點에서는 위와같은 公式表現은 宜當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然이나 이땅의 이國民에게는 意義깊은 7.4 聲明이 革命戰略에 立

脚한 北韓의 對南接觸때문에 對話가 壁에 부딪혔을뿐더러 同聲明이 無意味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政府는 새로운 次元에서의 統一外交로써 위와같은 6.23 宣言을 낸 것이지만 同宣言의 基本原則과 그 方向을 受諾 同調하면서 北韓이 어느 形態론가 對話를 繼續하려 들것인가는 未知數인 것이다.

그러나 對話의 持續에 對한 北韓側의 対応은 別個의 問題이니 論外로 하되 爲先 此項에서는 6.23 宣言이라는 우리의 統一外交政策이 保守·偏狹했던 從前의 것과는 달리 完全히 새 次元에서 構想된것 인가를 論해 보기로 한다.

나) 6.23 宣言은 새로운 統一政策의 構想인가?

同族相殘까지 벌였던 우리의 南北關係가 7.4 聲明을 통해 韓半島에 있어서의 戰爭防止를 다짐했고 對話에로까지 發展했다는 事實은 平和에로의 進一步인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南北의 統一政策이 各各 同床異夢이기때문에 數三次에 걸친 接觸·對話가 壁에 부딪혔고 마침내 南쪽에서 6.23 宣言을 내자 北쪽에서는 <高麗聯邦制>를 提議해 오기에 이른것이다. 그렇다면 對話不振의 原因이 雙方의 偏狹한 政策, 即 依然히 “ 먹느냐 아니면 먹히느냐 ”式的 極限的이고 非妥協的인 데에 있다고 結論할진대 우리는 우리의 從來 試圖策에 對한 깊은 反省이 있어야 하고 또 새로운 試圖策에 對한 根本的인 政策的 構想을 配慮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北의 南北對話에 對한 対応은 共產主義 革命戰略에서 비롯되는 것이기에 論外로 한다손 치드라도 다른 한편 우리의 새 試圖策은 果然 東西

의 빨럭体制下에서도 国民国家的 再統一을 이룩할 수 있는 合理的인 政治的思惟의 基底위에서 세워진 것이냐를 檢討해볼 必要가 있다.

6.23 宣言이 世界的 緊張緩和 趨勢를 十分 勘案한 宵和的이고 妥協的인 統一外交指針이라해서 많은 西方国家 및 中立国家群의 共鳴을 얻었다고 한다. 그러나 對話의 持續을 熱願하면서도 全民族의 政治的要求를 分斷의 再統一에 묶어놓은 나머지-現在의 四強關係나 南北의 異質的인 現存秩序로 미루어 보면 우리가 바라는 式의 民族의 再結合이란 不可能한 것이거늘 우리의 政治指導者들은 이를 솔직하게 表言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北, 韓의 主權的 實在을 認定하지않은 同宣言이 果然 새로운 次元에서 構想・企劃된 統一外交指針이나 하는 것은 선뜻 肯定的인 對答을 할수 없는 問題다. 그래서 筆者는 同宣言을 새로운 統一政策의 構想이라고 하기보담 從來의 統一政策이 進一步한 現段階的 暫定策이라고 보고 싶다. 즉 從來의 政策과 可替代性을 갖는 現段階的 形態에 不過하다는 말이다. 왜냐면 우리의 統一政策이 異質体制의 收斂化를 위한 內政改革을 隨伴하지 않은채 다만 外政的 優勢를 통해서 北韓体制의 變質・弱化를 꾀하는 定向에서 세워져 있는限 東西對立을 超克하고 民族의 再結合을 꾀하는 合理的인 政策이 못된다는 말이다. 經濟建設로써 国力을 倍養하고 國際政治에서 外政的 優勢를 繼續 維持하기만 하면 우리가 願하는 式의 統一이 가까워 온다는 所信은 誤謬인 것이다. 武力統一이 아닌限, 우리의 現体制과 国力이 北韓보담 越等하게 優

勢해질 境遇 우리는 畢竟 北韓을 잃고 만다는 現實政治的 眞
眞理를 우리는 터득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二國家
二民族論」對「一民族 二國家論」으로 맞스고 있는 東西獨의 現況이
우리에게 歷史的 教訓을 남겨주고 있다.

相民主主義下에 西獨國民이 「라인의 奇蹟」을 이룩해가든 五〇
年代에 獨逸政治의 슬로건은 自由, 經濟建設, 統一의 세가지였다.
同슬로건의 旗幟下에 뭉친 西獨國民은 耐乏과 勤勞로써 라인의 奇
蹟을 이룩했던 것이다. 同再建事業을 推進할때 西獨의 政治指導者
들은 自由와 經濟建設이 爭取되지만 하면, 그後의 國民輿論은 오직
統一에로 集約되리라고 確信했었다. 이와같은 獨逸政治指導者의 想
念을 豫言的으로 代辯한 것이 W.S. 슬람 (W.S.Schlamm)이다.
一九五八年 W.S. 슬람氏는 “奇蹟의 限界”라는 그의 論著에서 다
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獨逸人의 豊요와 福祉가 언젠가 頂點에
다다르면 그들은 甚한 酒滯를 앓것이다. 그런데 이 滯症을 消化
시킨 것은 “統一”이라는 良藥밖에 없을 것이다」註3) 라고.
그後 一九六〇年代의 前半期만 해도 西獨의 政治雰圍氣는 統一論
議가 活潑한 편이었다. 一九六四年 그 當時의 全獨省長官이든 E.
멘테 (E.Mende) 氏가 獨促進協議委의 베르린年次大會에서 「自然
發生的으로 獨逸人의 統一에의 意志가 자라고 있다」註4) 라고 公
表한바도 있었다. 그러나 六〇年代 後半의 輿論趨勢는 위와는 다
른 方向으로 기우렸었다. 즉 豊요속에서 安逸한 삶을 享樂하는
獨逸의 諸國民層은 統獨이 内外의 諸與件으로 因해서 不可能하다는

것을 認識하자 統一論議에 無關心을 表明하기 始作한 것이다. 이 같은 國民輿論을 正確하게 理解하고 있는 브란트는 東西歐의 獨逸 隣邦들이 어떠한 對獨感情을 갖었나를 明確하게 知悉한 政治家로서 六九年의 總選을 期해 執權하게 되자 東西政治의 現狀況下에서는 國民國家的 再結合이라는 統獨이 不可能하다는 眞實을 西獨國民에게 公表한 것이다. 그後 브란트는 東西和平속의 獨逸再結合이라는 長期的이고 高次元의인 統獨策에 立脚해서 東歐와 和解했으며 一民族 二國家論에 依拠 東獨과 基本條約을 締結하고 離散家族의 再會 및 往來를 可能케한 平和政策을 驅使한 것이다. 西獨政治의 野黨側에서는 지금 브란트의 이같은 平和守護속의 長期的인 民族再結合策을 分斷의 永久化政策이라고 非難하고 있지만 平和的 方法을 통한 東西對立의 超克을 爲해서는 브란트의 東方政策 및 統一政策이 가장 賢明한 政策임을 率直히 是認해야 하는 것이다.

勿論 우리의 境遇, 分斷의 歷史的背景과 諸局面이 獨逸과는 判異하게 다르다. 近代獨逸이 유럽에서 占하는 그 位置가 우리의 最近世가 極東에서 占하는 位置와는 달랐지만은 戰後의 發展過程 그 自体도 確然하게 달랐었다. 東西獨의 国力比較는 南北韓의 그것과 다르며 獨逸人和 韓國人은 똑같은 分斷民族이기는 하지만 民族意識度도 亦是 다르다. National State의 再建을 爲해서는 가장 重要한 것이 그 民族이 느끼는 祖國愛요 國家意識인 것이다. 그런데, 똑같이 四半世紀를 分斷狀況에서 살고 있지만 韓國人의 同族意識은 獨逸人의 그것보담 훨씬 強하다. 그러한 意味에서 우리는 지금 北韓을

性急하게 承認한다든가 또는 그와의 諸關係 正常化를 為해 或種의 平和條約을 締結한다 등의 瑣雜을 自招할 必要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對北戰略에서 한가지 있어서는 안 될 것은 北韓이 우리의 對等한 파트너라는 點이다. 즉 우리와는 다른 政治理念을 가지고 우리의 北녘을 四半世紀동안 支配해온 主權的 實在임을 우리는 認定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大前提下에 우리는 南北의 異質體制를 同質化시키기 為해 포지티브한 內政改革으로써 段階的 接近을 꾀해야 하며 四強이 納得할만한 韓半島的 發展을 이룩하는 것만이 참된 統一에의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위와같은 諸要因을 配慮·構想한 6.23 宣言이 아닌 以上, 우리의 政治指導者들이 真正 戰爭을 願치 않 다 하더라도 南北關係의 進展에서는 必是 戰爭이 誘發되고 말것이 明若觀火한 것이다..

2. 韓國民族의 特徵

가) 民族理論의 一般論에서 본 韓民族

民族이란 무엇이냐라고 한마디로 묻는다면 우리는 그 概念을 아래와 같이 定義할 수 있을 것 같다. 「한 領土안에서 多數의 人間이 오래 住居하므로써 共通의 言語와 共通의 文化를 갖게 되며 또 그것이 社會的紐帶에로까지 成長하므로써 그들 서로가 從屬感情을 갖게 된 人間들이다」라고. 이것이 즉 「純粹한 民族」인 폴크(Volk)의 概念인 것이다. 그리고 政治化된 民族(Nation)에 대해서는 「純粹한 民族인 <폴크>가 認定한 政府가 서있는 所謂 한 主權國家—그 안에 사는 政治意識를 갖게 된 한 民族(Volk)이다」라고 理解한다. 結局 <폴크>가 政治化하여 <네이션>이 되기 때문에 十九世紀 後半의 國民國家의 統一時代以後 <네이션>은 흔히 <國民>이라고도 불리운다. 즉 Volk 概念과 Nation 概念의 差異는 한 民族이 그 民族自決을 爲한 政治的思惟를 갖었느냐, 못갖었느냐 하는데에 있다고 하겠다.

歷史的으로 보면 한 <네이션>의 힘이 政治權力의 單位로써 發動되는 것이 <네셔널리즘>이었는데 이는 주로 國家없는 社會가 民主主義와 人民主權의 바탕위에서는 獨自的인 國家를 要求할때에 出現했었다. 오늘의 눈에서 보면 <네셔널리즘>은 주로 十九世紀에 通用된 多樣的인 政治勢力이었다고 特徵지을 수 있지만 이는 結局

現代社會을 形成한 重要한 政治理念이었던 것도 事實이다. 프랑스 革命과 나폴레옹 戰爭以後 <네셔널리즘>은 民族理論의 發展과 더불어 多樣的인 出現形態를 보였는데 韓民族의 特質을 찾아내기 爲해서 먼저 <네이션>과 <네셔널리즘>의 近代的 發展을 概觀해 보기로 한다.

먼저 Nation의 語義를 따져보면 이 민족이라는 말은 라틴어의 Natio 에서 왔고 出生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獨逸語에서 말하는 政治化된 民族인 Nation은 英語에서는 People이나 Nationality 에 該當되며 獨逸語에서 말하는 純粹한 民族인 Volk 는 英語에서의 Nation 에 該當된다. 結局 出生을 뜻하는 <네이션>이라는 말이 十九世紀의 多樣的 政治的 發展을 거치는 동안에 위와같이 나라에 따라 相異한 表現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프랑스 革命以後 유럽의 近代를 뒷받침한 이데올로기는 Nationalism, Imperialism, Socialism 이었다. 同理念들을 바탕으로 유럽의 國民國家群이 各其 擴張的인 內外發展을 꾀한 것이 十九世紀였는데 同世紀의 政治的 發展이 産業革命을 바탕으로 아주 多様했기 때문에 우리는 十九世紀를 가르켜 <青年의 世紀>라고도 한다. 그런데 青年의 世紀를 만드려낸 十九世紀의 유럽 <네셔널리즘>을 分析해 보면 나폴레옹 戰爭以後 獨逸統一(1870年)까지의 <네셔널리즘>은 自由·民主主義的 카테고리에서 그 發展을 거듭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네셔널리즘이 個人主義와 民主主義에 倚靠 自然的 締結으로써 發展해간 저 때와 또 그後 十九世紀末 유럽社會의 政治

的 經濟的變化에 따라 네셔널리즘의 出現形態가 變形되 었든 때를
 兩分하여 西歐의 學者들은 저 Nationalistic Tendency 의 社會
 條件을 分析하고 또 때로는 이를 合理化하기 爲해 民族理論을 많
 이 發展시켰든 것이다. 그러나 民族理論에 對한 研究가 비로소
 十九世紀에 이르러서 行해진 것은 아니다. 十八世紀의 民族理論도
 卓越한 것이 있었다. 例컨데 J. G. 헤르더 (Herder) 의 歷史哲學
 的인 民族論이 그 代表的인 것이라 할수 있다. 中世末期에 이미 스페인
 과 포르투갈이 民族國家的 發展의 기틀을 짚었고 또 그에 이
 어 英國과 프랑스가 百年戰爭以後 絶對主政의 民族國家的 發展을
 이룩하고 있을 때 獨逸은 前近世的인 後進性을 脫皮하지 못하고 있
 었다. 元來 유달리 強했던 게르만世界의 地方分權主義에 三十年
 戰爭의 疲弊가 걸드렸었고 또 루터改革으로 말미암아 十五世紀後半
 의 Germania 的 獨逸語族의 從屬感情이 살아졌을 때라 獨逸人들은
 世界市民主義的 氣象에서 살고 있었다. 神聖로마帝國이라하여 獨逸
 語族의 外形的 統一은 存続되었었지만 帝國內의 諸領邦 이 自家領
 統治에 汲々했기 때문에 이는 獨逸語族을 하나로 묶는 統一된 政
 治機構가 아니었다. 十七, 十八世紀의 獨逸에는 위와같이 獨逸語族
 이 하나로 묶인 政治的統一이 欠如되었기 때문에 저 때의 獨逸人
 은 國家民族的인 感情이 없이 다만 文化民族 (Kulturnation) 의
 同一語族의 感情과 紐帶만을 갖고 살았었다. 저 때의 獨逸에 있
 어 그들의 世界市民主義的 精神界와 文化民族의 概念을 理論化한
 者가 Herder 인 것이다. 註 5)

그後 프랑스革命과 나폴레옹戰爭에 이어 中·東歐 諸民族의 民族意識이 일깨워지자 Fichte, Hegel, Marx 등등 諸學者에 依해 民族理論이 多角度로 檢討, 主張되었으며 一次大戰을 前後해서는 民族問題의 研究가 世界的인 붐을 볼고 왔었다. 獨逸의 G. 슈몰러 (G. Schmoller 經濟學)와 F. 마이네케 (F. Meinecke, 歷史學) 이탈리아의 J.K. 블렌칠리 (J.K. Blencilli, 國際法), 오스트리아의 I. 자이펠 (I. Seipel, 카톨릭 神學者)와 社會主義 政論家 O. 바우어 (O. Bauer) 및 O. 슈판 (O. Spann, 社會學者), 英國의 A. 토인비 (A. Toynbee)와 E. H. 카 (E. H. Carr, 政治學者) 美國의 H. 콘 (H. Kohn, 歷史學), L. 스나이더 (L. Snyder, 歷史學) 및 C. J. H. 헤이스 (C.J.H. Hayes, 政治學), 소聯의 J. 스탈린을 비롯한 近來의 많은 마르크스主義 學者들이 그代表的인 學者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者들의 民族論 研究를 綜合·概觀해 보면 이들은 <네이션>의 本質을 究明하는데 있어 客觀的인 面과 主觀的인 面の 兩側面에서 檢討하고 있다. 즉 客觀的인 面에서는 地緣, 血緣, 文化 (言語와 宗教를 主로 取扱함) 및 經濟 등의 諸干係를 觀察하고 있고 主觀的인 側面에서는 民族精神과 民族性 그리고 共同의 歷史的 運命이라는 要因을 重視하여 理論化하고 있다. 그런데 民族의 本質把握에 있어서 學者들 間에는 主客觀의 兩側面中 어느 한 側面을 強調하는 事例는 許多하지만 兩側面中 어느 한 面만이 民族形成의 決定的要因이라고는 主張할 수 없는것이 오늘날까지의 通說이

되어 있다. 或者는 兩側面中 容觀的인 面을 強調하면서 그 中에서도 特히 地緣의 要因을 重視하지만 同要因이 民族形成의 決定的인 것은 못된다. 왜냐면 二次戰末까지 世界의 失郷民役을 한 猶太民族의 實例로 보아 土地와 民族의 不可分性을 論하는 地緣共同體說은 完璧한 것이 못된다.

둘째는 血緣共同體도 마찬가지다. 民族形成은 同一種族이라야 한다는 血緣의 強調도 完全한 것이 못된다. 三個民族이 混合되어

瑞西를 이루고 있는 實例가 있거니와 Wien의 社會學者 Othmar Spann 에 依하면 純粹血族에 歸하는 民族은 거의 없으며, 大部分의 民族은 種族의 混合에 依해서 이룩된 것이 通例라고 한다. 註6)

셋째는 民族이 言語·宗教와 淵인 文化的所産이라는 所謂 文化共同體說인데 地緣 血緣의 要因보다는 民族의 本質을 浮刻시키는데 強한 要因이라고 할 수 있지만 多民族國家에 있어서 言語的 要因이 큰 役割을 못하고 있고 또 傳統의 因習과 思想이 強한 民族風土에 있어서는 宗教的 要因도 重要 役割을 못한 點으로 미루어 보면 亦是 同共同體說을 單獨으로 내세우기는 좀 未汲하다. 勿論 言語內容의 歷史的 解明에서 民族의 本質把握은 正確할 수 있고 또 宗教的 要因이 血緣 및 言語的 要因과 融合될 때 한 民族이 보다 強하게 浮刻되는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한 民族의 言語를 그 民族의 種族의 組織을 表現하는 規範으로 삼는 것은 不適合하며 또 祭政이 一致했던 古代가 아닌 現代 世界에서 一民族속에 多數의 宗教가 並存하는 狀況에서는 宗教的 要因이 크게 重要視되지 않는 것도 事實이다. 註7)

네제는 經濟가 政治生活와 密接하게 連結되어 있는데문에 한 民族의 特色은 經濟生活의 共通性에서 찾아져야 함을 主張하는 經濟共同體說인데 이는 주로 마르크스主義者들에 의해 強調되고 있다.

그러나 民族의 特性을 民族精神에서 찾은 R. Muir 같은이는 近代民主主義가 資本主義를 바탕으로 자랐기 때문에 經濟가 民族形成에 큰 影響을 미친것을 認定하면서도 經濟만이 民族形成의 單獨 主要因이라고 보는데는 反對하는 立場에 서있다. 註 8)

다른한편 民族論을 主觀的側面에 重點을두고 研究한 學者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저들에 依하면 民族이란 自然共同體나 文化共同體가 아니고 「共同意識」이라고 하는 主觀的要因을 그 本質로 內包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客觀的 諸要因이 生活共同體에로까지 統一되는것은 事實이지만 그 共同體가 意識의 統一性을 갖게 되는데서 비로소 人類의 自然的 共同體라고 하는 <民族>이 成立된다는 것이다. 이들 中에는 民族意識 乃至 民族精神을 民族의 本質로 보는者가 있고 또 한 人間集團의 共同的 歷史的運命을 民族의 本質로 보는 者들이 있다. Blunccili, Renan (仏), Fichte, Hegel, Oppenheimer 등이 前者에 屬하는 者들이며 Otto Baer 같은이가 後者에 屬하는 代表者이다. 前者의 클럽에서는 「스스로 民族임을 自覺하는 集團이 民族이다. 註 9)」라고 보고있고, 後者の Bauer 같은이는 客觀的 民族理論을 全面 排擊하고 오직 「共同的 運命」에서만 民族의 終局的 要因을 찾으려 하였다. 즉 그는 民族을 運命共同體

에서 性格共同体에로까지 結合된 人類의 總體라고 보았는데, 運命共同体란 똑같이 處한 運命에의 服從이 아니고 恒時 繼續되는 交互作用을 通해 同一한 運命을 共同體驗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註 10)

結局 民族의 本質把握에 있어서 主觀的側面을 重視하는 民族理論家들은 民族意識이나 民族精神을 社會意識의 一種으로 봄으로써 民族을 確固한 共同意識의 集團的自覺을 갖는 人類의 集團이라고 했었다.

民族理論家들은 十九, 二十世紀에 위와같이 多角的으로 民族論을 體系化 試圖했었지만 따지고 보면 <民族> 그 自体는 옛부터 諸種族의 歷史過程에서 만들어졌은 것이다. 古代의 高度文化時代에 治水事業이 이룩되었고 國家도 建立되었으며 中央集權的인 王政도 行해졌었다. 그리고 文字가 發明되자 知的貴族階級도 생겼으며 行政機關도 整備되었은 것이다. 그리하여 同發展過程에서 共通의 言語와 共通의 神話를 갖는 人間集團은 마침내 統一된 自覺을 갖는 民族을 만들어냈었다. 註 11)

그런데 이 民族이 近代(1789 以後)에 이르러 政治權力的 單位가 되어 그 拓勢運動을 벌리자, 우리는 이를 <네셔널리즘>이라고 불렀은 것이다. 그런데 前述한바와 같이 今此世紀에 이르러 <네셔널리즘>을 體系化한 碩學들은 數多하지만 이들中에서 筆者는 同理念을 英國의 E.H.Carr 氏가 가장 概括的(政治的, 歷史的, 社會學的 側面等)으로 解說하고 있다고 보고 그의 論證을 들어 네셔널리즘의 發展을 要約해 보련다.

그는 네셔널리즘의 發展을 三段階로 区分하여 考察하였다. 그 第一期는 中世의 末期에서 나폴레옹戰爭의 終結까지이며 (1450 ~ 1815), 그 第二期는 近代 네셔널리즘의 形成期라 하여 一八〇〇年 무렵부터 一九一八年의 一次大戰末까지였다. 그리고 第三期는 네셔널리즘이 絶頂에 達했을 時期로서 一九一八年에서 一九三九年間을 区劃하고 있는데 그는 이諸時期를 아래와 같이 特徵지우고 있다.

第一期는 民族國家나 民族敎회의 成立以後 絶對王政의 形態에서 統治者와 貴族들이 國家를 代表하던 時代로 보았고, 第二期는 市民이 政治勢力化한 近代 네셔널리즘의 形成期라고 보았으며, 第三期는 國家의 社會化와 經濟政策의 國家化가 遂行되었던 때이며 네셔널리즘이 地理的擴張과도 가장 密接하게 結合된 時期라고 보았다. 그리고 또 그는 現代 네셔널리즘의 課業을 論했는데 戰後 各國의 네셔널리즘은 東西政治의 現狀이 維持되는 속에서 各國이 그權益擁護에 奔忙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積極的인 平和政策을 追해서 諸國家 人民의 生活條件을 改善하는데에 盡力해야 한다고 提言하고있다.

즉 平和維持와 國際社會의 繁榮이 그 存立目的인 諸國際機構는 <社會正義>를 바탕으로 諸活動을 展開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社會正義>의 內容으로써 機會의 均等, 窮乏에서의 解放, 完全雇用 等を 들고있는 點은 國民國家群의 諸發展이 國際主義를 指向하는 것이라야 한다는 義로운 思想的 提言인 것이다. 註12)

Nation을 바탕으로 展開되는 各國의 네셔널리즘이 그 出現形態

에 있어서는 제각기 그 歷史的인 背景을 中心삼기 때문에 多樣하고 相違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民族理論 그 自体는 世界의 어느民族에게나 그 一般論的 카테고리에 相當되는 評價基準이 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同民族理論에 準하여 韓民族의 特質을 찾아볼 수도 있다.

前述한바와 같이 近代民族形成의 諸要因은 地緣, 血緣, 文化, 經濟 民族意識 및 共同의 運命 等 여섯가지였는바 分断以前의 韓民族은 同 6個要因을 모조리 가춘 近代 民族概念의 典型이 될 수있는 民族이었다. 위의 諸要因中에서 分断以後의 韓民族이 한가지 喪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經濟라는 要因뿐이다.

이와같은 韓民族의 特性 때문에 南北韓은 72년에 7.4 共同聲明을 냈었지만 同特性을 勵案하여 우리는 分断超克의 方法에 있어서도 반드시 獨逸方式을 模倣할 必要는 없는 것이다. 勿論 우리側에서 유엔의 同時加入案을 提議한 只今, 南北의 再結合 試圖가 發展過程에 있어서 東西獨의 干係 正常化 過程과 다른바 없다고 내다보기 쉬우나 對內的인 一民族 一國家 二政府論을 對外的인 一民族 二國家論과 合理化할 수 있기 때문에 分断超克의 韓國的 打開方法을 넣을수도 있는 地이다. 이 問題의 法理論的 合理化는 第四章의 國際法的側面에서 본 一民族 一國家 二政府論欄을 參照하기 바란다.

나) 東西獨의 民族論

前述한바와 같이 韓民族은 近代유럽의 民族理論에서 보아도 그 民族概念을 完璧하게 그려낼 수 있는 諸要因을 具備한 民族이지만 獨逸民族의 生成過程은 우리와 같지 않다. 비스마르크의 統獨(1870年)에 이르기까지 저들에게는 國家民族的인 民族意識이 없이 다만 文化民族的인 意識밖에는 없었다. 뿌리 깊었던 地方分權主義 信仰의 分裂, 政治的 統一의 欠如 등으로 元來 民族意識이 薄弱했던 獨逸人에게 民族意識을 갖게 한것은 온전히 비스마르크의 謗物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獨逸帝國이 히틀러獨逸의 狂舞로 因해서 75年の 短命했던 國民國家로써 終焉을 告하자 히틀러時代에 가장 沸騰했던 獨逸人의 民族意識은 微盡해졌으며 特히 分斷狀態下에서 四半世紀를 經하는 동안 저들의 裡國愛와 國家意識은 아주 稀微해진 것이다.

즉 히틀러獨逸에 同調한 罪過때문에 저들은 Deutschtum을 誇示하는데 意氣를 잃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저들이 分斷狀況에서 살면서도 아직까지도 그들 서로를 <남>이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저들의 分斷超克에 있어 가장 問題視되는 것은 <民族> 問題였고 또 지금도 亦是 問題꺼리가 되어 있는 것이다. 72年末에 東西獨이 基本條約을 締結하면서도 民族問題에 關해서는 全然 言及하지 않은 것을 보면 四半世紀의 統獨試圖過程에 있었던 저들의 民族論爭은 아직도 結末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東西獨이 民族問題(Deutsche Nation)를 各々 어떻게 理解하고 있는가를 略述해 보면 다음과 같다.

西獨의 브란트가 <一民族 二國家論>을 내세우면서 政治現實과는 干關 없이 獨逸民族이라는 <民族의 同一性>은 繼續 存続된다는 것을 立論한데 反해서 東獨의 호네커는 <二國家 二民族論>을 내세우고 있다. 즉 호네커에 依하면 四半世紀의 分斷에서 派生된 東西獨의 異質體制는 예전에는 하나였던 獨逸民族에서 二個의 獨逸民族을 낳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東西獨의 위와같은 民族論을 에워싼 對立은 決코 엇그제에 發端된 것이 아니고 이미 1949年에 東西獨의 政府樹立때 부터 始作된 것이다. 먼저 西獨의 境遇를 보면 아데나워, 에르하르트, 키징거 등의 保守政權時에는 <一民族 一國家論>으로 統一外交를 展開했었다.

그러나 69年以後 社民 自民의 聯立政權에서는 <一民族 二國家論>을 내세웠는데 이것이 所謂 브란트 統一政策(Deutschlandpolitik)의 大前提이었다.

結局 브란트는 東獨의 國家的實在를 認定하므로써 二國家論을 是認했지만 分斷속에서도 하나의 獨逸民族이라는 <民族의 同一性>은 存続된다고 본 것이다. 브란트는 執權後 여러차례 그 나름의 獨逸民族概念을 아래와 같이 밝힌바 있다. 「히틀러帝國의 無條件降伏이 있는지 25년이 지난 오늘, 民族概念은 分斷獨逸의 中核이 되어 있는바 民族概念에는 歷史的인 眞實과 政治的인 意志가 融合되어 있어야 한다. 民族이란 共通의 言語와 文化, 國家와 社會秩序

등 보담도 훨씬 더 <많은것>을 내포하는 意義있는 것이다.

왜냐면 그것은 <네이션>이 한 <풀크>의 從屬感情을 持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觀點에서 보면 하나의 獨逸民族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否認 못할 것이다」^{註 13)} 라고.

그러나 위와같은 西獨의 民族論에 反해서 東獨의 것은 그렇게 單純하지가 않다. 왜냐면 그들은 社會主義的인 東獨政權의 鞏固化를 爲해서 時勢를 쫓아 民族論을 段階的으로 發展시켜왔기 때문이다. 저들 民族理論의 段階的發展을 概觀해 보자. 1967年版 東獨의 政治學 小辭典을 보면 「民族이란 生産力과 文化의 發展形態인바, 이 發展形態의 歷史的 性格은 諸社會, 經濟層의 對立과 協同을 通해서 特徵지워지되, 이는 結局 物質的으로 理念的으로 그들 文化的 關心의 豊요를 그려낸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最近에 東獨共産黨의 理論家인 A. 노르덴 (A. Norden, 宣伝局의 中央委 書記長)이 民族問題에 關해 言及한 바에 依하면 「한 民族안에 두 國家는 있지않고, 異質的인 社會秩序의 바탕위에 存立하는 國家안에 두 民族이 있다」^{註 14)} 라는 것이다.

이 말은 結局 지금의 獨逸에는 領土, 經濟, 心理的, 道義的 特徵 文化, 歷史, 言語, 感情 등의 共通性이 없어졌다는 것을 뜻하며 그러므로써 「하나의 獨逸的인 民族」은 더 以上 實在하지 않는다는 事實의 力說인 것이다.

基本條約 締結을 前後해서 東獨은 위와 같이 (二國家 二民族論)을 들고나오고 있다. 그러나 저들의 民族論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分斷 四半世紀에 걸쳐 正確하게 三段階의 發展을 해왔다. 그 第一段階는 「分裂없는 하나의 獨逸民族이 存在한다」는 것을 主張하는 때인데 그 時期는 四九年에서 六〇年初까지를 劃할 수 있다. 저 때의 民族論은 一九五〇年代의 共產世界 民族論을 支配하고 있던 스탈린의 概念의 定義에 基底를 두었으며 國土는 分斷되었지만 民族은 分裂되지 않았다는 主張하는 순수民族論의 展開過程이었다.

第二段階는 民族分裂論과 社會主義的 民族形成論을 내세우면서 스탈린의 民族理論을 獨逸的 카테고리에서 修正하려는 때인바 그 時期는 六二年에서 六九年까지다. 六二年에 A. 코징 (A. Kosing) 教授가 「獨逸民族의 死活問題」라는 論著를 냈고 또 六四年에 R. 안징거 (R. Anzinger) 教授가 「現今의 國際法에 立脚한 民族自決權」이라는 하빌리타치온 (Habilitation, 教授資格取得論文을 말함)을 낸 것 등은 모두 民族論을 東獨의 國策을 좇아 合理化하려 했던 試圖였다고 할수있다. A. 코징 教授는 上記의 著書를 年後 六二年 五月에 Einheit 誌에의 寄稿를 통해서 스탈린의 民族概念을 批判한바 있는데 그 理由는 六〇年代라는 獨逸的 狀況에서 볼때 스탈린의 概念定義는 不適合하다는 것이다. 왜냐면 同定義가 한 民族의 特徵을 性格化하는데 있어 그 民族의 意義와 役割 및 發展法則등을 明確하게 評價하지 못한것이기 때문에 이는 抽象的인 一般論의

価値밖에 지니지 못한다는 것이다. 좀더 仔細히 말하면 스탈린의 定義에는 한 民族이 勞働者層의 主導下에 社會主義的인 民族으로 轉換해 갈수 있다는 可能性의 提示가 欠如되어 있다는 것이다. 結局 코징의 論證인즉 東西獨의 民族分裂은 二個의 國家體制에서 緣由된 것이지만 순수民族의 從屬性은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것이며 國土分斷 自体가 하나의 統一된 社會主義的 民族形成을 通해서 超克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코징教授의 위와같은 修正提議는 後 안정거氏의 同調에 依해서 더욱 뚜렷해졌었다. R. 안정거氏는 獨逸의 民族問題를 國際法上의 民族自決權이라는 面에서 볼때 獨逸에는 순수한 두 民族 (Zwei Volker) 이 있을 뿐이지 두 네이션이 있을수는 없다고 主張했는데 이 말은 歷史的으로 發生한 社會共同體로서의 하나의 獨逸民族 (Eine historisch entstandene deutsche Nation) 은 依然히 存在한다는 말이다. 註15) 즉 비스마르크統一에 의해 일깨워진 獨逸人의 政治化된 民族意識은 계속되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第二段階까지의 東獨의 民族理論은 결국 社會主義的 民族形成을 鼓吹하면서도 다른한편으로는 同一民族으로서의 從屬感情을 그들 스스로가 갖었는 때의 主張인 것이다. 즉 그때까지는 種族의 心理的 特色이라는 要因이 作用했기 때문에 西獨에 사는 獨逸人을 完全히 (남)이라고 規定지우지는 않았는 段階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第三段階는 「民族의 類型化」를 合理化 試圖한 때인데 이 時期는 六九年以後 現在까지에 該當된다. 이 段階에서는 六九

年以後의 스탈린論 修正試圖가 奏効하여 東獨의 住居民이 漸次 社會主義的 國民意識을 갖기 始作했다. 六八年 四月에 制定公布된 第二의 東獨憲法 第一條를 보면 「獨逸民主共和國은 獨逸民族의 社會主義 國家다」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東獨의 社會主義 統一黨이 國法을 適用하여 民族理論을 修正試圖한것을 立證한다. 同國家基本法을 바탕으로 W. 울브리히트(W. Ulbricht)는 七〇年 一月에 새로운 「民族形態論」을 내놓았는데 이는 「東獨이 社會主義的인 獨逸民族國家인데 反해서 西獨은 資本主義的인 Nato 國家」라는 것이었다. 註16)

一九五四年 西獨의 아데나워政權이 鞏固해진以來 東獨은 솔곧 國際政治에서 兩獨論을 通用시키려고 그 國權을 뒷받침하는 民族理論을 위와같이 發展시켜온 것이다. 西獨 外交政策研究會의 研究委員인 G. 슈바이글러氏의 論證에 依하면 六九年以後 東獨 住居人의 七〇%가 西獨의 同胞兄弟를 戀慕하는 態度이며 또 저들에게 漸次 東獨的 國民國家意識이 싹트고 있다는 것이다. 註17)

近代獨逸의 民族形成過程이 유난히 複雜했든것은 이미 論한바 있지만 分斷 四半世紀가 지나간 오늘 獨逸民族은 東獨共產黨의 <新民族論>때문에 民族自體를 分裂當해가고 있는 판국이다.

다) 民族과 國民國家

筆者는 위에서(第二章의 (가欄) 民族(Volk)라 國民(Nation)의 概念을 定義한바 있다. 순수한 民族인 Volk가 그

民族의 獨立과 政治的 自由를 爲해 그들의 民族自決을 政治的으로 行使할 수 있을때 그 Volk는 政治化된 民族으로써 Nation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Nation이 그 種族的인 統一國家를 建立했을때 우리는 이를 國民國家라고 부른 것이다. 이탈리아와 獨逸의 統一以後 歷史上에 「國民國家時代」라는 時代的概念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 이 政治化된 民族인 Nation을 一名 國民이라고도 부르기 始作한 것이다.

프랑스革命(1789)以後 近代國家의 理想은 國民國家였는데 이가 近世初期부터 어떠한 發展을 해왔나를 概視해 보기로 한다.

Universalism으로 一貫되었었던 中世의 基督教共同体가 分裂된 後 여러나라(특히 西유럽)가 近世初期부터 個性的인 發達을 通해 絶對主義的 主權을 確立했든바 이것이 바로 National state의 始發이 된 것이다. (스페인王國의 成立과 百年戰爭以後의 英仏狀況) 그러나 이들 絶對主義國家가 重商主義와 植民地 獲得으로 國勢를 擴張해갈때 저들의 實際政治는 一民族 一國家의 理想을 堅持하는 카테고리에서만 行해지지는 않았다. 一民族이 여러나라에 分屬된 境遇가 있었는가 하면(十八世紀 폴란드의 三分割이 그 的 中한 例임) 두個 以上の 民族이 한 國家에 屬되었든 實例도 許多했었다. 結局 支配的 地位에 있는 民族이 植民地를 包含한 異民族을 同化시켰을때 위와같은 發展을 한것인데 이는 一民族 一國家의 概念과는 別個의 것이면서도 同發展도 亦是 民族國家 또는 國民國家의 盛勢라고 불리운 것이다. 民族을 形成하는 要因의 하나가 「

「運命의 共同」이기 때문에 政治的 運命을 같이하는 諸種族은 一國民國家의 族屬으로 세여졌는 것이다. 프랑스가 알제리아人이나 越南人을 莫論하고 프랑스國籍을 갖는者를 프랑스의 Nation으로 看做했는 것에 反해서 獨逸은 獨逸種族이 어느곳에 散在해 있는間에 獨逸語를 쓰는者(Deutsche Zunge)를 Deutsche Nation이라고 보았었다. 이와같이 相異한 獨逸의 民族概念 定義는 오늘의 研究 觀点에서 보아도 興味로운 것이다.

그러나 그 反面에 우리나라처럼 古代부터 이미 순수한 民族國家를 形成하고 있는 境遇라도 國民으로써의 政治的自覺이 欠如되어 있을때는 그 民族은 순수한 自然民族인 Volk일 뿐이었다. 그리고 또 支配的地位에 있는 民族이 統治領內의 異民的 同化試圖에 失政했을때나 또는 他國의 異民族을 併合하려고 했을때 被支配의 立場에 있는 순수民族이 政治化하고 國民化된 實例도 許多했다. (煥洪帝國과 東南歐의 슬라브族 屬들이 그 的中한 例이다). 즉 支配的 民族의 植民主義的인 帝國主義的인 危脅을 排除하고 새로운 民族國家를 形成한 例가 이에 該當되는 것이다. 1, 2次 大戰後 亞阿世界의 諸新生國이 同카테고리에 屬하는 民族國家群이라 하겠다.

그러나 한 Nation이 國民國家를 形成하는데는 그 國土의 政治的 統一이 絶對要件이지만 그 보담도 더 先行되어야 할 主要因은 그 民族의 民族意識 發想인 것이다. 즉 國家가 한 民族에게 統一과 組織을 주는것이기 때문에 그 民族은 國家를 建設하고 強한 政治生活을 營為할려는 意志와 意識을 갖어야 하는 것이다.

危機에 처한 한 민족이反省하고自覺하는認識의結果가民族意識이라는 것인데 이民族意識을爲해 그 민족의歷史意識은作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民族意識과國家意識은同質의 것이냐는疑問이生길 수 있다. 프랑스革命後國民國家의理想이一民族一國家였기때문에이는마땅히同質의 것이어야했지만各國의發展過程이보인것은반드시그렇지가않다. 즉民族意識은統一國家가주어지지 않았든 때는文化民族(Kulturnation)의意識形態로 나타났었고統一國家成立以後에는國家民族的(Staatsnation)意識形態로 나타났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의分斷國에게도再統一이 없는限同民族意識은곧國家意識이 될수는 없는 것이다.

獨逸의境遇를 보면一八世紀에 J.G. Herder가 새로운 순수民族概念(Volksbegriff)을 내놓았었다. (Herder以前에民族意識의發現을鼓吹한者는 Klopstock와 Lessing이다).

그런데同概念에서乃終에는 새로운政治化된民族概念(Nationsbegriff)이派生되었으며 이것이 때로는 Negativ했고 또 지나치게 "國民主義的인 것"을 보이기도 했었다. Herder는當初나에 저 순수民族概念을人道主義的인世界市民主義的인觀點에서理論化했었다. 그의主張인즉「民族이란生成해서消滅해가는神의創造物인 것이다. 한 민족은 그의價值와權威를民族精神이 담겨져있는 그의特有性에서 만들어내고 있다. 勿論 민족의名聲이란野蠻的인征服精神에서發揮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諸民族中

神의 格別한 選擇을 받은 民族은 없는 것이다. 모든 民族이 그 自身을 찾으며 努力할때 真理는 諸民族에게 獨特한 方法으로 찾아지는 것이며, 또 諸民族에 依해서 人類의 동산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모든 人間은 自己民族을 사랑해야 하지만 이 사랑은 普遍的인 善行의 認識을 阻止하는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註18).....中略

위와같은 Herder 式 Volk 의 概念이 나폴레옹戰爭以前에는 獨逸人에게 文化民族的 意識만을 갖게 했지만 Wien會議를 前後해서는 外軍侵襲과 外勢의 壓力에서 각성했기 때문에 統一國家를 念願하는 政治的인 民族意識을 甞아주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一八四八年의 三月革命을 前後해서는 各邦(獨逸聯邦의 諸邦을 말함)의 知識層이 高潮된 民族意識을 갖고 비스마르크의 統一運動을 積極支援했기 때문에 帝國은 建設된 것이다. 이때부터 獨逸은 國民國家이며 統一後의 獨逸人들이 서로 좀더 많은 政治意識과 民族的從屬感情을 갖게 된것은 事實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스마르크時代에 民族意識과 國家意識이 完全히 一致되어있지는 않았다. 왜냐면 同帝國이 未完成的 國民國家로써 國內에 少數의 異民族을 包含하고 있었고(덴마크人, 폴란드人, 알사스人 등). 또 다른한편 東歐와 東南歐 特히 奧匈帝國內에는 많은 獨逸諸族을 散在시켜왔기 때문이다. 註19)

이와같이 獨逸民族的 生成過程과 그 現在狀況은 複雜하기만 하다. Kulturnation 이 Staatsnation 으로 變換한것도 獨逸近代의 發展過程과 <宿命的>이라고 하리만큼 얽혀있으며 히틀러獨逸때에는

저들이 지나치게 國民主義的이었던 點. 또 그 罪過때문에 七五年의 短命했던 國民國家로 종언을 고했던 點. 그리고 또 지금의 分斷狀況에서는 民族的 從屬感情의 持統이나 아니면 社會主義的 獨逸民族이 舊獨逸의 正統을 잇느냐로 맞서고 있는 것 등을 보면 獨逸의 民族的 進路(Werdegang der Nation)는 複雜하기만 한 것이다.

이와같은 獨逸의 民族狀況에 比하면 우리의 民族問題는 아주 單純하다. 왜냐면 우리는 古代부터 순수한 民族國家를 維持해온 民族이며 一九世紀後半에 일깨워진 우리의 民族意識 및 國家意識은 日帝治下에서 強한 民族運動으로 發現되었고 大戰後의 分斷狀況에서도 民族的 從屬感情은 두터히 維持되고 있기 때문이다.

結局 同一民族임을 느끼는 이 從屬性때문에 民族的次元에서 보면 南北의 再結合이 어렵지않게 되어있으나 同一民族의 바탕위에 쓴 異質體制의 政治的 妥協이 難題가 되어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政府는 <一民族 一國家 二政府論>을 내세우고 段階的 接觸을 통해 對北干係를 改善하려 하고있다. 勿論 同政策의 그 方向과 指針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筆者도 생각한다. 그러나 統一課業을 期於히 完遂코저 한다면 우리는 <一民族 一國家 二政府論>을 어느時點에가서는 國家聯合制 形態로서 合法化하던가 아니면 <一民族 二國家論>의 新形態論을 낳아야 한다고 筆者는 確信한다. 이 두 形態論의 發展過程에서 北韓이 社會主義的 新民族論을 내놓지 않는限 在來의 同族感情은 維持되는 것이며 同心理的 基底위에 南北이 서로 內外政의 諸構造를 收斂化 試圖하면 國民國家의 建立은 언제이든 어느形態論과 可能하다고 본다.

3) <一民族 一國家 二政府論>과 國際社會

가) 一民族 一國家 二政府論과 民族의 從屬性問題

國民國家의 建立을 爲해서는 同一民族의 從屬性問題가 重要타는 것을 爭者는 前章에서 이미 指摘해 두었다. 지금 東西獨의 境遇를 보면 <一民族 二國家論>을 내놓은 西獨에서는 東獨의 國家的 實在을 認定한 現時點에서도 東獨住民과의 同族感情은 持續되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持續되리라고 보고있다. 그러나 그 反面에 東獨은 <二國家 二民族論>을 내놓은 版局이라 舊帝國時代의 <하나의 獨逸民族>에서 社會主義的 獨逸民族과 Nato 國家的 西獨國民이 誕生했기때문에 하나의 獨逸民族이라는 民族感情은 살아졌고 또 살아져가고 있다고 主張한다. 基本條約 締結에 따른 民族論爭이 앞으로 어떠한 結末을 갖어올 것인가는 아무도 豫測할 수 없지만 民族分裂論 研究에 關한 最近의 發表를 보면 베르린障壁의 構築以後 東獨에는 社會主義的 國民意識이 漸次 싹타다고도 한다. 註 20)

西獨의 東獨承認이 어디까지나 兩獨間의 特殊干係를 規制하기 爲한 國法的인 國家承認이라고는 하지만, 何如間 同承認으로 因해서 同族感情의 消滅論과 民族分裂論이 抬頭된것만은 틀림없는 事實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一民族 一國家 二政府論>은 將次 單一民族의 從屬感情을 持續시키는 問題와 어떠한 聯國性을 갖는냐는 問題가 惹起된다. 왜냐면 韓半島에 있어서의 二政府論은 嚴密히 말하면 <一政府 一政權論>이기는 하지만 何如間 三八線 以北의 地域을

金日成政權이 統治하고 있다는 事實을 是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一政府 一政權論>의 現段階에서는 國家的承認이 아니기 때문에 民族分裂論이나 同族感情의 消滅憂慮를 玄謂할 時點이 아니지만은 將次 同二政府論이 더 發展해서 南北間에 或種의 條約을 締結하게 될때를 假想한다면 默示的인 國家性 承認은 境遇에 따라서는 南北間의 民族的 從屬感情을 弱化・消滅해 갈것이 아니냐는 問題가 聯想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境遇는 <二政府論>이 더 發展한다해도 東西獨과 같은 民族狀況을 낳지는 않을 것이라고 推理되는 것이다. 왜냐면 첫째는 二政府論 自體가 北韓의 國家的 實在을 承認한것이 아니며, 둘째는 設令 將次 그를 承認한다손 치드라도 우리民族의 特殊性이나 相互交流라는 接觸은 同族感情을 더 두터히 持續시키는 結果를 가져오리라는 것이다.

이 두가지를 부연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韓民族의 特殊性에 関하여는 前章에서 이미 仔詳하게 論한 바 있다. 註 21) 古代부터 純粹한 民族國家를 維持해온 民族으로써 近代의 民族概念에 立脚해서 論하드라도 地緣・血緣・共通의 文化・運命의 共同 등 諸要因을 빠짐없이 가춘 完全한 民族인 것이다.

그리고 韓末의 外勢干與에서 눈뜬 우리民族의 政治的 自覺은 日帝治下 抗日斗争에서 論한 民族意識을 發現시켰으며, 또 大戰後의 分斷狀況에서는 가난을 쉬이 몰아내기 爲한 삶의 慾求에서 民族統一에로의 強한 意志를 보았으며, 同意志는 이 時點에서도 發現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敵對的인 對立時의 斷切과 對話期의 疏通 및 去來는 어
느것이 더 同族感情을 두터히 持續시키냐는 問題인데 이는 後者의
境遇가 훨씬 優勢하다는 것을 五〇, 六〇年代의 對北干係가 實証하
는 것이다. 同族相殘을 겪은 터이라서 對話以前의 對北政策은 밖
으로는 西方과의 紐帶下에 南쪽만의 国力伸長을 꾀했고, 안으로는
反共을 國是로 내걸어 共產主義의 抹殺을 企圖했었다. 그러기 때
문에 北韓은 南쪽의 政府와 國民을 完全히 敵對視했으며 새 世代
의 政治思想教育을 통해서 共產主義的인 韓國의 未來像을 靑少年의
腦裡에 심었든 것이다.

그러면, 對話以後의 狀況은 어떠한가?

지금 當場은 對話가 中斷되어 있지만 内外政의 變動에 따라 어
느形態론가 對話를 繼續해 갈境遇 通信交流 및 制限된 人的往來
등은 同族의 從屬感情을 強化할것이 確實視되는 것이다.

나) 國際法的 側面에서 본 <<一民族 一國家 二政府論>>

南, 北韓의 交流를 통해 再統一을 試圖하여 불려는 韓國政府
의 努力은 1970年의 光復節에 行하여진 朴大統領의 聲明에서 비
롯 되었다. 그후 7.4 共同聲明을 契期로 南·北韓의 對話가
始作되었으나 北韓의 拒否的인 態度로 말미암아 現在 不振狀態에
處해 있다.

分斷國家群의 再統一을 論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例拳되는
것은 東·西獨의 法的性質 및 그들이 取하여 온 實際政治라 할
수 있다. 흔히 指摘되는 바이지만 東·西獨의 法的地位와 南·北

韓의 그것은 다른 性質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事實을 살펴보면 異質 속에서 同質性 혹은 類似性이 있었음을 發見할 수 있다. 이러한 比較研究的인 觀點에서 보면 西獨政府가 主張하고 있는 一民族 二國家論은 무엇을 內容으로 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 韓半島의 條件과는 어떠한 關聯性을 갖고 있는냐는 問題가 惹起된다.

國際法上으로 볼 때 舊獨逸國家의 領土안에 實在하고 있는 東·西獨은 國家形態를 갖춘 두개의 國家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獨逸에는 舊國家인 獨逸帝國 (Deutsches Reich) 만이 如前히 存続하고 一民族에 東·西獨이라는 두개의 政府가 있다고 主張할 수 있느냐 하는 問題다.

이같은 獨逸의 法的地位를 解明하기 爲한 西獨學者들의 努力은 1949年 西獨政府의 樹立과 더불어 오늘에 이르기 까지 꾸준히 繼續되고 있다. 獨逸帝國의 存続을 主張하는 意味에 있어서의 "지붕說 (Dachtheorie)" 은 舊獨逸이라는 지붕이 있고 이 지붕 밑에 西獨과 東獨이라는 聯邦國家들이 있으며, 다시 西獨이라는 聯邦國內에 各州가 있다는 것이다. 註 22) 그러나 東獨은 1951年을 期하여 "二國家說 (Zweistaatentheorie)" 을 主張하면서 그의 立場을 正當化하려고 하고 있다. 註 23)

즉 이 東獨側學說에 依하면 1949年에 成立된 東·西獨은 어느 쪽이든 간에 舊獨逸帝國을 繼承하지 않았기 때문에 東·西獨은 두개의 新生國家라는 것이다. 따라서 두개의 新生國家가 成立되었다.

는 事實은 旧独逸帝國은 消滅해 갔다는 것을 實証하는 것이다.

勿論 東·西獨이 UN에 同時加入된 오늘날에 있어서 東·西獨을 두개의 主權國家로 보자는 見解도 없지는 않다 (大部分이 第三國의 立場). 그러나 西獨이 主張하는 바는 그것이 아니다.

즉 同時加入은 했지만 東·西獨의 關係는 國際法이 要求하고 있는 正常的인 關係가 아니라 東·西獨間에만 適用되는 "特殊한 關係"로 보는 것이 妥當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西獨政府의 見解는 學者들의 여러 學說中에서도 特히 "競爭的 要求說 (Theorie der rivalisierenden Ansprüche)"에서 힘입은 바가 크지않나 推測된다. 즉 獨逸의 法的地位를 解明함에 있어서 이 學說은 旧獨逸領土上에 存続하고 있는 東·西獨政府가 서로 優越的인 地位를 차지 하려고 競爭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兩獨의 國家形態는 單純한 部分序列로서가 아니라 事實上 東·西獨이라는 地域에 限定된 政府들로서 이들은 서로가 獨逸全域에 對한 統治權을 爭取하려고 努力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學說은 旧獨逸帝國의 存続을 是認하고 있으며 두 政府中에 西獨政府만이 合法政府로서 準暴徒的이며 事實上 一部 地域政權에 不過한 東獨政權에 對하여 優位를 차지 하려고 努力하고 있는 立場이다. 註 24)

위와같이 獨逸의 法的性質을 解明하는데 있어 同學說은 西獨의 政治人과 法學徒들의 많은 共感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1973年 9月 18日 第 28次 UN總會에서 東·西獨이 同

同時加入됨에 따라 이 學說의 適用可能性 與否가 새삼 抬頭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東·西獨이 UN에 同時加入하기 以前 西獨政府는 繼續 이 學說에 立脚한 對 東獨政策을 取해왔는데 加入以後에도 同理論을 適用할 수 있느냐는 疑問이 생기기 때문이다.

西獨政府는 1969年 10月 28日 字 聲明에서 비록 獨逸內에 二個의 國家가 存在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서로가 外國이 아니며 또한 서로간의 關係는 "特殊한 部類 (Uon Besonderer Art)" 의 것이라고 했다. 註 25) 勿論 이러한 西獨政府의 立場은 그 後에도 機會있을 때마다 力說되었지만 註 26) 特히 1970年 3月 21日 西獨의 Kassel 市에서 兩獨首相間에 論議한 "20個項目" 中 第 10項에서도 獨逸의 特殊한 地位와 아울러 兩獨의 住居民을 一民族으로 보자고 強調하고 있는 것이다. (西獨側의 提議). 註 27)

西獨에 依해 主張되고 있는 이와같은 特殊關係는 1972年 12月 21日에 締結된 兩獨간의 基本條約 註 28) 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東獨의 現實을 是認한다는 意味에서 第 9條에는 兩獨이 同條約 締結以前 外國과 締結한 雙務 및 多邊條約은 이 條約에 抵触됨이 없이 繼續 有效하다는 것을 明示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獨逸의 特殊事情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敗戰 및 軍事占領 그리고 四大管理國에 의한 獨逸의 最高統治權의 掌握 등에서 由來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獨逸이 四大管理國下에 있는限 東·西獨이 모두 國家形態를 具備하고 있고 또 서로가

국가로承認하여 줄것을 願한다 하더라도 그와는 相関없이 獨逸에 對한 最終的인 決定權은 四大국이 保有하고 있다는 말이된다. 그런 立場에서 본다면 東·西獨의 國家性은 어디까지나 制限된 主權國家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東·西獨의 UN加入에 對해서 四大국은 加入申請에 對한 支援과 그들이 保有하고 있는 全獨逸에 對한 權利 및 責任등과는 別個의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즉 東·西獨의 加入申請에 對한 四大국의 贊成은 어디까지나 國際機構인 UN과 申請國間의 關係이므로 비록 東·西獨이 四大국의 支援을 얻어 지금 會員國이 되기는 했지만 이 自體는 그들이 保有하고 있는 全獨에 對한 責任과는 何等의 關係가 없다는 것이다. 註 28)

또한 東·西獨의 加入은 그 加入에 贊成하지 않는 既會員國에게는 如前히 非承認의 原則이 適用되는 것이다. 四大國과 東·西獨의 關係에서 볼때 兩獨間의 關係는 特殊關係로 取扱되므로 西獨으로서는 구태어 東獨을 國家로 承認할 必要도 없으며 아울러 會員國의 立場에 있어서도 어디까지나 UN 對 西獨間의 關係를 意味하기 때문에 東獨이 西獨에 依한 國家承認을 要求할 아무런 法的 根拠도 없는 것으로보고있다. 이러한 面을 參酌해 볼때 西獨이 取하고 있는 對 東獨 國家非承認 政策은 理論과 實際에서 잘 符合되는 것이다.

結論的으로 보아 西獨政府가 主張하고 있는 一民族 二國家論은 旧 獨逸國이 如前히 存統하고 있으며 東·西獨의 居民은 一民族이며 兩域에 存立하고 있는 東·西獨政府는 再統一을 通해서 全獨에 對한

支配力を 争取하려고 試圖하는 두 政府로 보기 때문에 事實上 一民族 一國家 二政府論인 것이다.

그러나 東獨은 二國家論은 消滅된 旧獨逸國內에 東·西獨이라는 두個의 新生自主國家가 成立되었다고 主張하고 있다. 즉 <<二國家 二民族論>>을 내세우는 東獨의 底意는 社會主義的 國民國家 建設이 可能해지기 까지 再統一보다도 兩獨論을 國際政治에서 確固히 通用시키겠다는데에 있다고 하겠다.

위에서 본 西獨政府의 持論을 根柢심아 韓半島의 法的性質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日本도 是認하는 바 이지만 1910年の 韓·日併合條約은 強壓에 依해 締結되었기 때문에 尙當 無効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大韓民國은 大韓帝國의 后裔國인 것이며, 또 韓半島에 있어서의 唯一한 合法政府임을 1948年の UN總會가 決議 承認했기 때문에 韓國의 國家的地位는 더욱 確固한 것이다. 이에 反하여 北韓의 金日成政權은 北韓地域에 駐屯한 朝鮮軍에 힘입어 樹立된 政權에 不過한 것이며 國際法上으로 볼 때에도 이 政權은 限定地域의 인 事實上의 政權(lokale de facto Regime)에 該當하는 것이다.

이러한 法的解釋에도 不拘하고 現存하고 있는 北韓政權과 大韓民國은 두個의 國家形態를 갖추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問題가 생긴다.

즉 韓國의 法的地位解明에 있어서도 一民族 一國家 二政府論이 그대로 適用되어야 하는가 하는 點이다. 解放과 더불어 美·소兩

軍의 韓半島駐屯은 Cairo 宣言을 誠實히 履行하겠다는 信託者의 平和駐屯이라고 볼 수 있다. 1948 年에 大韓民國政府가 樹立되고 1949 年에 北韓政權이 樹立되자 韓半島內에는 "合法政府" 對 "事實上的 政權" 이라는 두개의 政府가 大韓帝國의 領土上에 成立된 셈이다. 그러나 合法政府인 大韓民國이 北韓이라는 失地를 回復하겠다는 意思를 拋棄하지 않는 限 大韓民國의 立場에서 본다면 北韓政權은 하나의 限定地域的인 事實上的 政權에 不過한 것이다.

그러나 韓半島의 法的性質이 獨逸의 그것과 相異한 點이 있다면 大略 다음과 같은 것을 指摘할 수 있다.

첫째로 1945 年부터 大韓民國의 政府樹立時까지의 美·ソ兩軍의 駐屯은 그들이 日本을 代身하여 最高統治權을 行使하였고 大韓民國의 樹立과 同時에 이 權利를 韓國政府에 移讓하였으므로 獨逸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같은 四大管理國에 依한 全獨에 對한 責任問題는 發生하지 않으며 大韓民國은 大韓帝國의 后裔國으로서 完全한 主權國家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7·4 共同聲明 以後 南·北韓의 對話가 이루어 졌다고 해도 前述한바와 같은 우리의 法的地位에는 何等의 變함이 없는 것이다.

둘째는 金日成政權에 依해 내세워진 所謂 高麗聯邦制 (Staatenbund Koreas) 의 問題點이다. 外見上으로는 聯邦國家體制에 의해서 國家統一의 準備段階가 形成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事實上 同聯邦制는 하나의 國家聯合 (Konföderation) 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同提議의 受諾은 北韓의 國家的地位를 堅固히 해 주는 同時에 境

遇에 따라서는 分斷의 永久化를 同調하는 結果가 된다.

國家聯合이란 同等한 主權國家間의 條約締結에 依하여 特定の 權限 - 例를 들면 財政 혹은 外交 등 - 을 갖게 되는 中央組織을 意味하는 것이다. 그러나 大韓民國의 法的地位와 北韓의 그것을 比較해 볼 때, 同提案은 赤化統一을 隱蔽하는 하나의 手段밖엔 되지 않는 것이다. 萬一 北韓의 이와같은 野慾이 充足되지 않는 경우 그는 二國家論에 依拠 自主獨立國임을 自處하고 國土의 永久分斷을 企圖할 憂慮가 十分 있음을 勘案할 때 이는 東獨의 手法과 相通한 것을 엿볼 수 있다.

끝으로 우리의 6.23 宣稱이 北韓의 法的地位에 어떠한 影響을 미쳤는가를 檢討해 보자. 東、西獨의 UN 同時加入에서 본 바와같이 南北이 UN에 同時加入된다 하더라도 大韓民國에 依한 北韓政權의 承認問題는 抬頭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北韓의 UN 會員國으로서의 資格取得은 어디까지나 UN 對 北韓의 關係일 뿐이지 國家의 承認問題와는 아무런 關係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南、北韓이 同時加入되는 경우 大韓民國의 北韓에 對한 非承認政策은 이에 關한 意思表示로서 足하는 것이다.

以上에서 본 바와같이 分斷國이라는 面에서는 獨逸과 韓國이 共通點을 갖고 있으나 서로가 處해 있는 法的地位에는 若干의 相異點이 있는 것이다.

즉 西獨의 境遇 四大管理國下의 制限된 主權國家가 걸으므로는 <一民族 二國家論>이지만 事實上 그 內訳은 <一民族 一國家 二

政府論>인데 이는 程度의 差異는 있을지언정 역시 韓國의 國權에
關한 法律解釋과 큰 差異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韓半島에도 亦
是 한 民族위에 旧帝國인 大韓帝國이 存続되어있고 또 合法政府인
大韓民國政府와 아울러 事實上的 政權에 불과한 金日成政權이라는
두개의 政府가 現存하고 있다는 事實을 否認 할 수는 없는 限
우리의 一民族 一國家 二政府論은 앞으로의 對北政治協商 如何에
따라 <一民族 二國家論>으로 發展시킬 수 있는 法理論의 余地는
갖고 있다고 하겠다.

4) 統一에 로의 漸進策

가) 收斂理論을 基底로 하는 南北接觸의 展開

平和的인 方法으로 異質體制가 單一體制를 形成할려면은 長期的인 接觸을 通해 異質的인 體制의 諸構造가 收斂化 또는 同質化해가는 道理밖에 없다. 그렇다면 南北의 接觸은 收斂理論을 바탕으로 展開되어야 하는 것이 必然的이다.

먼저 收斂理論이란 어떠한 것이냐를 論해보자. 收斂이란 말의 語源을 따져보면 라틴語의 Convengere에서 왔는데 英語로는 Convergence요, 獨語로는 Konvergenz라고 한다.

이것은 「무엇에 기울어지다」 「接近하다」 「한 점에 모이다」 라는 뜻으로써 元來는 自然科學 分野에서 쓰든 말이다. 즉 예전에는 幾何學에서 두 線이 한 점에 接하는 境遇, 生物學에 있어서 生體나 或은 各器官의 機能이 比較的 類似한 環境의 適應으로 因하여 類似性을 갖는 境遇 醫學에서 두 눈의 注視線이 눈 앞의 한 點으로 集中하는 境遇 등에 쓰여졌고 또 지금도 쓰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 語義的 概念을 社會科學者들 특히 經濟學者들과 社會學者들이 社會現象의 어느 特殊한 樣相을 說明하기 爲하여 使用하기 始作한 것은 極히 最近의 일이다.

一九四七以後 冷戰體制가 形成되어 東西는 한동안 協力없는 自己 發展을 持統했지만 現代의 特徵인 科學과 技術을 바탕으로 東西社

會는 各己 高度의 産業社會에로 發展해 간 것이다.

즉 異質的인 두 體制가 高度의 産業化라는 同一한 未來社會를 向한 過程에서 核膠着에 따른 人心의 變化가 일자 東西의 學者들도 平和的인 未來社會를 研究하기 始作한 것이다.

그리하여 東에서는 마침내 平和共存論이 나왔는가 하면 西에서는 産業社會觀, 未來學, 收斂理論 등이 나온 것이다.

즉 歐美의 學者들은 먼저 産業社會의 時代概念을 定立한後 異質體制가 長期接近하면 必是 單一的인 未來産業社會를 낳을 것이라는 收斂理論을 내놓은 것이다. 結局 收斂理論은 未來社會 形成의 構造概念과 産業社會時代라는 時代概念의 바탕위에 세워진 異質體制의 同質化過程을 論한 假說으로써 登場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同理論의 中核은 무엇이나를 論해보자. 한마디로 말하면 同理論은 現代의 두 社會經濟體制인 資本主義와 社會主義는 同一한 技術的 社會的 經濟的 課題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解決過程에서 未來의 發展方向은 類似한 軌道일 것이라는 論拠이다.

즉 同理論은 産業社會의 共通된 特性이 發展過程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增加 즉 力動的 過程을 通하여 두個의 社會體制가 結果的으로 分離해 나갈수 없을 程度로 變化를 갖어올 것을 내다본 假定說인 것이다.

同收斂理論이 五〇年代 後半以後 如何히 發展해 왔나를 概觀해 보자. 收斂에 關한 最初의 著書를 낸 사람은 프랑스의 經濟學者 R. Aron인데 그는 資本主義體制와 社會主義體制를 産業社會의 두

社會類型으로 보았지만 兩体制의 接近과 収斂化는 可能하다고 主張
했었다. 註30) 둘째로는 五八年에 經濟面의 収斂可能性을 主張한
美國의 經濟學者 W. Buckingham을 들 수 있다. 註31) 그는
實質的이고 機能的인 經濟体制는 相互逸脫보다는 必是 相互接近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論證을 내놓은 것이다.

셋째는 美國에 歸化한 蘇聯系 社會學者 P. A. Sorokin이요.
네째는 和蘭의 經濟學者 J. Tinbergen을 들 수 있는데 前者는
未來社會의 構造的 變化 可能性을 시사했고 註32) 後者는 現代產
業社會가 異質的인 社會經濟 秩序의 接近을 通해 兩体制의 短点은
止揚되고 長点의 統合이 이룩될것임을 理論化했었다. 註33) 그後
六〇年代에 들어서서 同理論은 많은 歐美 社會科學者의 共鳴을 얻
어 더욱 發展되었다. 美國의 經濟學者 J. K. Galbraith, 西獨
의 經濟學者 K. C. Thalheim, 社會學者 R. Dahrendorf 등이
六〇年代에 나타난 同理論의 大家들이다.

특히 六三年以來 西獨에서는 共產黨과의 對決에 있어 露骨的인
反共理論이나 Rostow式 産業社會論을 내세우느니 보담 同理論으로
맞스는 것이 妥協的이고 合理的이라 해서 進歩派 知識人과 政治的
인 言論의 많은 同調를 얻고 있는 狀況이다. 七〇年代에 들어서
서 社民系의 小壯學者 H. Heimann 같은이가 同理論을 바탕으로
分斷을 超克하기 爲한 <新統一論>을 立論한 事實 등은 興味있는
關心事가 아닐 수 없다.

위와같은 西方側의 収斂理論을 東歐의 理論家들은 부르조아의 早

期資本主義理論이 縱統 論理的으로 發展된 것이라고 斷定하고 兩
체제의 同質化的 未來社會의 出現을 全面 否定하는 態度이다.

西方世界의 收斂理論을「 낡은 世界의 새로운 Mythos 」라고
못 밖은 東獨의 政治史象 G. Rose, 收斂理論이 「 마르크스. 레
닌主義를 完成한 東歐人의 觀念과 理性的 思惟에는 合致되지 않
는다고 主張한 東獨의 政論家 H. Meissner, 그리고 共產社會의
制度的 特色을 強調한 蘇聯의 V. Stoljanow 등에 依하면 西
方世界의 收斂理論은 經濟發達을 뒷받침하는 工業類型을 그 類似
性과 統一性을 識別하는 觀點에서 보지않고 單一的인 產業社會의
概念만을 가지고 現代의 發達된 異質체제의 諸國家를 본다는 것
은 矛盾이라는 것이다.

즉 西方世界는 經濟成長의 段階說 (Stufentheorie) 에 立脚
해서 世界 모든 나라의 社會的 發展이 統一的으로 이루어져 감
을 前提하고 兩체제의 接近과 收斂이 可能하다고 보았다는 것이
다.

다시 말하면 西方側 理論家들은 두 體制가 모두 生産活動의
實際에 있어서는 <利潤>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두 體制의 經濟的 「 메카니즘 」이 平衡되기 마련이라고 보았고
또 同 메카니즘이 經濟的 規範의 單純한 外形만이 아니고 어느
確정한 社會的 諸干係까지도 具現하는 것이라고 前提했지만 이는
全的으로 誤謬라는 것이다.

왜냐면 同理論은 資本主義가 發達된 나라의 大衆만이

Kapitalism을 人間의 自然法則的 發展策으로 여기고 또 이를 人間社會의 永久的인 社會形態로 認識하고 있다는 것을 풀이했을 뿐이지 社會主義的인 變革을 爲한 人間의 鬪爭은 無意味한 것으로 取扱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저들은 西方側의 收斂理論을 크게 세 가지로 들어 批判하고 있다.

첫째 生産의 目的이 古수를 莫論하고 <利潤> 그 自体에 있기는 했지만 社會主義的 生産方法에 있어서의 大量生産은 社會的 蓄積의 財源이며 이것이 教育 文化등 諸社會分野의 緊要한 要求를 充足시키는데 牽仕하고 있다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私有財産의 擴張이 아닌 社會主義的 生産方式이야말로 個人과 社會間에 歷史的으로 자란 矛盾을 超克시켜 社會主義的 民主主義를 具現하는 唯一한 道路인 것이다.

둘째 西方世界의 學者들은 異質體制속의 人間의 思维的 特性에 아무런 配慮없이 單純하게 人間의 主体-觀念을 同一視하는데 이것도 矛盾이라는 것이다.

왜냐면 두 體制속의 人間이 各自已 다른 觀念을 갖고 살아오는 동안에 두 社會秩序도 서로 異質的인 類型의 發達을 보았다는 事實을 等閑 한다는 것이다. 즉 西方世界에서 收斂理論이 나온 것은 事物의 實質的 存在에 關한 東西人의 觀念이 確實히 달라졌다는 點을 西方學者들이 認識하지 못했거나 或은 이點을 否定하는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세째 西方側에서는 産業技術革命時代라는 時代性에 依해 國家的

對立이 좀 緩和되고 유럽의 國民經濟가 接近 協力되고 있는 現象으로 보아 資本主義와 社會主義도 必是 <脫이데올로기> 傾向에 接近한다고 推論하지만 이는 한 社會의 制度的 性格과 社會 機構의 總體를 度外視한 論理라고 反駁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같이 세가지를 들어 共產世界の 學者들은 西方世界の 收斂 論을 封鎖하고 「産業化 過程에서의 体制의 收斂化論」을 頑強하게 否定하고 있지만 兩輪적의 現存 社會秩序中에는 事實上 共通된 特徵이 全然 없지도 않은 實態이다.

例컨데 生産手段에 있어서 利潤의 追求는 東西를 莫論하고 예나 지금이나 다른바 없지만 먼저 西方世界에서 独占企業이 無限 定 成長할 수 없는 社會構造 變形과 國策이 樹立되어 있다.

産業國有化, 國家投資의 增大, 個人資本의 制限 등등이 그 實例인 것이다. 그런가 하면 共產世界에서도 生産手段의 合理化를 爲한 變化가 알고 있다. 즉 生産高가 높아지므로써 國家經濟의 增大에 따른 勞動者의 生活向上이 있기 때문에 利潤增大를 위해 그들 나름으로 企業의 管理体制를 改善 試圖하고 있는 것이다. 蘇聯의 Liebermann 理論을 비롯해서 불가리아의 經營改編論 (Kunin 教授의 主唱인), 東獨의 新經濟政策, 유고의 所謂 競爭社會主義, 체코의 市場定着的인 社會主義 등등이 그 好例인 것이다.

그리고 또 同收斂論을 純粹理論面에서 보더라도 그 主要命題가 첫째 工業化過程에서는 体制差異에 干係없이 生産手段의 技術과

管理層이 脫이데올로기 傾向에 들어스게 된다는것 둘째 經濟活動의 効率化를 爲해서는 閉鎖社會도 그 開放이 不可避하다는것 셋째 豊饒한 福祉社會에서는 Dogma的 世界觀에 變化가 일기 마련이라는 것. 넷째 異質體制間의 交流에서는 優秀體制에 人心의 變化가 기운다는것 등등이고 보면 命題의 一般論으로서는 否定的 余地가 없는 合理性을 갖고 있다. 그위에 또 實際的인 面에서 戰後 二〇余년에 걸쳐 일어났든 東西國家間의 體制的 變化는 同理論의 原理에 合致되는 것이였든 아니였든 間에 이것은 分明히 産業社會에 對의 途程에서 일어난 理念의 修正이요, 體制的 改革이었다고 볼적에 同理論의 未來社會에 對한 假說은 非論理的인 것은 아닌 것이다.

以上에서 筆者는 收斂理論을 概觀했고 또 東西社會의 外形的인 體制變化에 對한 類似性도 把握해 보았다. H. Heimann같은 收斂理論家에 依하면 産業社會의 收斂現象은 社會全般에 일기 마련이기 때문에 分斷下의 異質體制가 Positiv한 方向으로 內的 改革을 이룩해 가면 필경 外政的 對立도 避할 수 있으며 마침내 單一體制의 Synthese型을 낳아 統一을 達成할 수 있다는 것이다. 註³⁴) 同論에 依拠하여 그는 兩獨干係의 實際를 分析하고 <新統一論>을 提唱했는데 兩獨의 內的 變換과 異質的인 社會體制的 收斂化가 遂行되기만 하면 東西의 別樣體制가 存立하는 속에서도 獨逸은 平和的 方法으로 分斷을 超克할 수 있다고 立論했었다. 結局 Heimann은 構造的 類似性이 諸國家間의 友好干係를 樹立하는 大前提라고 보았기 때문에 內政面의 收斂化는 外政的 對立을

解消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分斷民族의 再結合도 可能하다고
본 것이다.

東西紛糾의 超克과 分斷國 再統一을 爲한 一般 論으로써 大端
히 論理整然한 同 Heimann의 論說에 立脚하여 우리의 民族分斷
의 再結合을 推論한다면 우리 統一政策의 基底는 亦是 收斂理論
이 뒷바침 해야하고 段階的 打決을 爲한 南北協力을 爲해서는
亦是 機能主義가 適用되어야 한다.

나) 南北對話와 四強干係

어느 形態이었던지 間에 統一課業을 完遂하기 爲해서는
우리 民族의 自決權行使가 問題가 아니라 東西對立의 平和的 超克
아니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四強干係를 어떻게 円滑하게 調整하
느냐에 그 關鍵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統一問題
는 南北韓이 四強干係에 발 맞추어 어떻게 잘 發展해 가느냐에
따라 可能与否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즉 對話를 통한 南北
韓의 發展過程이 東西의 分裂과 四強干係의 對立을 어떻게 超克
하느냐에 있다는 말인데 現南北韓의 偏狹하고 硬化된 國策은 昨
년에 始作된 對話의 길을 막고 있는 實情이다.

그렇다면 實際政治의 이 難局을 打開하기 爲해서 즉 壁에 부
딛친 南北對話를 다시 우리의 主導下에 계속 이끄러나가기 爲해
서 協商을 提議해야 하는 것이 當面問題인 것이다.

측 或種의 政治協商이나 外交的 側面에서의 壓力이나 또는 南北 接觸機構(調節委)의 改編 등이 當場에 考慮되어야 하지만 此際에 이 보담 더 先行되어야 할 問題는 참된 平和戰略에 立脚한 새로운 統一政策案의 樹立이다. 北韓을 承認하지 않은채 間接적으로 单独代表權을 계속 主張해서 우리의 靑少年들에게 再統一을 抛棄할 수 없는 法的 要求를 維持시켜주려는 現政府의 苦衷은 十分 理解한다.

그러나 從來의 統一案대로 統一이 可能하느냐의 問題를 爲政者를 비롯하여 全國民이 正直하게 反省. 判斷해 볼 必要가 있다. <먹느냐 아니면 먹히느냐式> 즉 韓國은 北韓을 收復하여 期於히 自由民主主義의 統治圈안에 넣으겠다는 式이며 北韓은 革命戰略에 依拠 兩韓을 解放하고 共產化 하겠다는 式의 統一方案이 武力이 아니고는 實現되겠느냐는 問題다. 七. 四聲明以後 南北이 韓半島의 戰爭防止를 다짐하고 平和的인 對話로써 民族의 再結合을 試圖해 보자고 다짐했지만 統一方案 그 自体에 對해서는 아무런 修正없이 從來의 案을 固守하고 있는 셈이니 結果的으로는 南北韓이 모두 戰爭은 願치 않는다고 하지만 現狀況下의 内外政治로서는 結局 싸움밖에 招來되는 것이 없다는 結論인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次元에 立脚한 統一政策은 어떻게 創案되어야 하나를 構想해 보자. 위의 各欄에서 筆者는 收斂理論의 學理的인 面을 說明해둔바 있다. 資本主義와 社會主義가 高度의 産美化段階에서는 類似해지되 同過程에 있어서의 体制的 變化는 兩體制에 다

같이 일어난다는 單一化的 未來社會의 假說인 것이다. 註35) 筆者는 同假說에 肯定的인 態度를 갖는 立場이다. 우리들 西方世界의 自由人이 共產主義者들에게 讓步할 수 없는 것은 單한가지 靈神의 Priority를 物質위에 두자는것 뿐이지 福祉社會建設을 뜻한 두 理念이 接近하여 그 長短점이 平衡되어가는 自体에 對해서는 얼마든지 寬大할 수 있는 것이다.

戰後時代의 產物인 同學說이 歐美諸國에서 平和共存을 爲한 現代의 發展策에 應用되기 始作한지 이미 오래인 것이다. 아이젠 하우워의 緊張緩和 政策이나 J. F. 케네디의 平和戰略이 모두 收斂의 概念에 뿌리박고 展開되었든것도 秘密이 아닌 周知의 事實이다. 註36)

위와같은 收斂理論을 肯定的으로 받아드린다면 平和的인 南北 再結合을 爲한 統一政策은 收斂理論의 바탕위에 세워져야 하며 北韓의 異質體制를 우리의 것에 同質化하여 單一體制를 이룩하기 爲해서는 北韓社會의 長點을 吸收하고 우리體制 自体内의 脆弱點은 除去해서 名實共히 健全한 內外政治體制를 다 지나가야 할 것이다.

例컨데 北韓은 南韓으로 부터 市場經濟的인 施策을 收容하여 國家的인 「全體 計劃化」를 緩和하고 아울러 國民 個個人의 意思가 反映되는 參된 代議制를 施行하는 方向으로 漸進的인 體制改革을 斷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南韓은 北韓으로 부터 國家計劃的인 要素를 받아 들여 國民 個個人의 自律없는 自由活動이 容 制約받은限이 있더라도

社會全般의 清新하고 均等한 發展度를 加速化해야 하지않나 한다.

南北韓의 內政面이 이와같이 健全하게 變化해갈때 그를 바탕으로 한 外政도 多元化 傾向으로 轉換해서 民族主体性에 立脚한 四強干係를 再調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政治路線을 汲수하는 이데올로기를 近代의 諸政治理念 카테고리에서 解釈하면 社會民主主義라고 命名할지 모른다.

그러나 무엇이라고 命名했든지 間에 위에 論한바와 같은 南北韓 體制의 收斂化를 이끄는 새 政治理念이 지금 우리에게 아쉬운 것이다.

마르크스以後의 社會主義를 科學的社會主義라고 한다. 그러나 이 科學的社會主義는 一八九〇年代와 一九二〇年代의 修正論爭을 거친後 左右派로 分裂되어 左派는 共產主義를 向한 社會主義를 쫓고 있지만 (東歐國의 形勢), 右派는 社會民主化해서 마르크스以前의 空想的 社會主義를 發展시키는 歷程을 겪은 셈이다. 지금 西유럽 여러나라에 社會黨이 執權하고 있으나 그들이 쫓는 社會主義는 溫健한 議會主義의 바탕위에 幅넓은 社會福祉를 實現하자는 것이 基本態度이지 決코 프롤레타리아트의 急進革命을 追從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면 西歐와 中歐의 社會民主主義는 오늘의 諸施政策을 卜적에 그들의 保守政黨이 追從하는 自由民主主義의 施政面과 큰 差異가 없는 實情이다.

一九六八年 체코에 自由化물결이 일었을때 西方世界는 歡迎과 同情의 識辭를 아끼지 않았었다. 勿論 저때에 드브체크의 人道的

社會主義가 實現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共產黨 優位の 바탕위에 是 人道主義이었지 決코 自由民主的인 西歐化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유고의 所謂 競爭社會主義도 마찬가지이다. 어디까지나 共產主義를 바탕으로 하되 効率的인 生産活動을 爲해서 制限된 民主制度를 許容하는 共產主義에로의 民族自主路線인 것 뿐이다.

그러나 東歐의 여러나라가 제각기 自由化와 民主化에로의 自主路線을 扞한다면 이는 分明히 國際共產主義의 變質과 弱勞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單一化되어가는 未來社會의 形成에 커다란 寄与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共產國의 自由化와 民主化를 促進할 수 있는나는 問題가 惹起된다. 五〇年代의 冷戰時代를 되돌아보면 硬化된 體制의 對立에서는 宗主國을 中心으로한 共產國의 結束밖에 없었다는 鮮 歷史의 教訓이 얻어진다.

그러나 國際緊張緩和와 더불어 兩極體制가 두너지자 多元化 趨勢속의 中小國들은 各己 民族의 特色을 살리는 方向으로 多樣한 發展을 試圖한 것을 우리는 보았다. 체코의 自由化가 그 代表的인 例이며 루마니아의 民族共產主義도 多元化傾向에서 派生된 產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東歐國의 變化를 爲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째 東西解氷무드의 持續이요, 둘째 最大限의 交流를 通해 諸國의 國家發展에 協力하면서 閉鎖社會를 開放시키는 일이며 세째 諸國體

제의 長點을 받아드려 우리의 脆弱部分을 是正하는 問題다.

속 共產社會가 誇張하는 勤勞者의 權益保護와 所得의 均等分配 등을 西方社會도 敗取해서 國民諸層의 經濟生活을 平衡해야 하는바 이를 爲해서는 西方世界도 亦是 自由民主主義보다는 民主社會主義 (Demokratischer Sozialismus)를 쫓는 것이 階層의 隔差를 좁히는 捷徑일 것이다. 資本主義社會의 不榮理를 쉬이 除去하고 中小市民의 福祉向上을 加速化하는 政治理念은 亦是 現代的 狀況에서 民主社會主義라고 하겠다. 世紀의 哲人 K. Jaspers가 科學技術時代 危機의 人間性 回復을 論하면서 未來社會의 政治形態를 社會主義와 自由市場 經濟로 묶었었다. 그가 말하는 社會主義는 特權 廢止와 아울러 正義를 基準하여 勞動收益의 分配을 組織化할려는 것이었지 決코 마르크스처럼 「社會의 全體的 計劃化」를 뜻하는 것이 아닌 것이 特徵이다.

그리고 經濟體制으로써는 計劃經濟보다도 自由市場經濟를 主張했는데 이는 部分的인 計劃이 嚴存하기 때문에 計劃化의 限界를 어디에 두느냐의 差違밖에 없다고 했다. 註37)

위와같은 推理에서 볼때 共產國의 自由化와 民主化를 期待할 수 있는 西方社會의 政治理念은 自由 保守主義보다는 亦是 民主社會主義가 好感的인 것이다.

前述한바와 같이 유럽의 實際政治에 있어서 自由民主主義와 社會民主主義는 大差없는 것이지만 自由民主體制보다는 勤勞者의 權益과 社會福祉를 爲해 幅넓은 國家計劃을 하는 社會民主主義 政治로써

우리가 對北接觸과 四強干係의 再調整을 꾀해갈때 北韓과 四強의
우리에 對한 對應度는 지금보다 無드러워질 것이 確實하다.

다) 內政改革과 統一外交

一九世紀까지만 하더라도 外交官 한 사람의 力量이 그
나라의 安保와 國勢擴張에 크게 寄與하기도 했다. 나폴레옹
戰爭以後 逆勢에 불려있든 프랑스였지만 Talleyrand의 싸롱外
交가 實効를 거두어 Bourbon王家가 Pentarchie에 參與되므로
써 敗戰 프랑스의 國際的 地位를 回復한 事實은 外交史의 興味
津津한 章이기도 하다. 勿論 오늘날도 外交政策家나 外交官의
役割이 全然 無意味한 것은 아니다. 幕後交涉의 名手로 알려진
지금의 카신저外交같은 것은 勢力均衡에 바탕을 둔 平和外交로서
높히 評價되고 있는 版이다.

그러나 現代外交의 特色이랄까 아니면 그 根本的인 것은 예전
처럼 外政이 內政과는 別個의 問題로 다루어질수 없는 版局이
되었다는 事實이다. <워터게이트事件>을 發生시켜놓고 美國이
民主政의 本山이라고 말하기가 속스러워진 것처럼 內政의 過誤가
外政에 곧장 反映되는 것이 科學技術時代의 政治인 것이다.

內外政이 이같이 密着되어있는 現代政治의 特徵을 十分 勘案하
여 東西對立의 平和的 超克策을 構想해 보면 人類의 將來를 為
한 決定的인 鬪爭은 外政이나 權力政治的인 對立에 있는 것이

아니고 東西의 各國에 있는 敎條的인 保守勢力과 進歩勢力간의 內政的 對立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면 이 對立은 各國의 支配勢力에 反하는 爭鬪가 아니고 참으로 잘 살기 爲해서 어떻게 各己의 社會問題를 解決하느냐 하는 高次元的 努力이 問題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結局 東西兩獨의 社會政策을 말하는데 西歐에 있어서는 體制超克的인 諸改革을 通해 漸次 資本主義經濟體制가 修正되고 東歐에 있어서는 官僚的인 一黨獨裁制가 超克되는 政策을 뜻한다.

內政面의 諸改革을 通해서 東西獨間에 外政的인 對立이 超克되고 獨逸은 마침내 再統一에 이룰수 있다는 These를 낸 H.Heimann의 <新統一論>을 概觀해 보기로 한다. 收斂理論의 追從者인 하이만은 獨逸統一은 오직 長期間에 걸쳐 東西의 對立이 超克되어야만 可能하다고 내다본다.

그러기 때문에 收斂理論에 立脚하여 東西世界の 接近을 肯定的으로 보는 그는 이러한 東西의 力干係에서 兩獨이 基本條約을 締結하고 서로 <남>이 아닌 테두리안에서 諸干係를 正常化한 것을 合理的이라고 본다.

즉 現段階의 東西獨이 爲先은 分斷을 固定化한것같은 狀態이지만 東西의 解決무드속에서 東西獨이 앞으로 계속 포지티브한 方向으로 內的改革을 이룩해가면 필경 國際政治에서 外政的對立도 避해지리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兩獨의 內的變換과 異質的인 社會體制의 收斂화가

그렇다면 結局 平和的인 對話와 段階的인 協力을 通해서 單一
化體制의 形成을 主導하려면 北韓의 變化만을 期待할것이 아니라
우리政府도 가까운 將來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幅넓은 社
會福祉에 國策의 向方을 돌려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開放的인 統一政策이 안으로서는 소외당한 知識層,
生活苦에 허덕이는 低所得層 그리고 萎縮된 發展을 하고 있는
靑年 學生들의 同調 支持를 받고 밖으로는 美, 日과의 계속 紐
帶 및 中, 蘇의 漸進的인 支援을 얻어야만 南北對話는 進展이
있는 것이다.

結 語

收斂理論의 未來社會에 對한 假定說을 肯定的으로 받아드리는 筆者의 立場에서 보면 6.23 宣言은 새로운 次元에서 構想된 開放의 統一外交의 指針이 못된다. 6.23 宣言은 다만 韓國民의 統一에의 意志를 尊重했고 또 東西의 緊張緩和趨勢에 適應해야 함을 不顧하지 않았다는데에 그 意義가 있을 뿐이지, 内外政의 改革을 通해서 劃期的인 對北政策을 세운 政策轉換的인 宣言은 아닌 것이다.

지금 우리는 官民이 모두 再統一을 熱願하고는 있지만 우리의 統一政策을 分析해 보면 統一에 達하는 實質的인 政策과 그 遂行方法은 欠如되어있다. 南北體制의 異質性을 超克하기 爲해서는, 長期的인 接觸과 交流가 必須이며 이를 可能케 하기 爲해서는 金日成의 革命戰略을 變質, 瓦解시켜야 한다. 그런데 同革命戰略을 變質, 弱화시키는 데는 四強의 對北壓力이 奏效할 것인바, 四強干係를 円滑 再調整하기 爲해서는 우리의 內的變換과 더불어 우리 外政이 좀더 플렉시블 해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政略을 뒷바침하는 政治理論을 어디서 找느냐는 問題가 抬頭된다. 筆者의 解答인즉, 이는 亦是 產業社會의 時代的 概念과 融合되어 東西紛糾의 平和的 超克方向을 莫然하게나마 提示한 收斂理論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勿論 收斂理論이 分斷超克을 爲한 新統一政策의 確固한 理論的인 바탕을 提示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全的으로 同理論에만 依支할 수는 없다.

그러나 莫然하게나마 單一化的인 産業化時代의 未來像을 定立. 理論化한 同收斂論과 異質體質의 段階的接觸을 理論化한 機能主義가 아니고서는 再統一 過程을 草案할 만한 다른 政治理論은 없는 것이다.

共產主義者들은 지금 同收斂理論은 勿論이요 資本主義와 社會主義가 낳을 〈綜合型的인 思想〉도 否認하고 있지만 이것은 理念的인 基本原理에서 全面 否定하는 것은 아니다.

東西諸國間의 國力比較에 있어서 社會主義體制下의 여러나라가 劣勢에 있기때문에 共產圈(특히 東歐圈)에 資本主義가 復活되지 않을까 하는 現實政治的 憂慮에서 拒否하는 것이다.

그러기때문에 東西體制의 收斂化問題는 收斂理論家들이 내놓은 兩體制의 〈綜合型〉이 西方世界에서 先行되면, 共產社會도 亦是 뒤따라서 施行하지 않을까 推測되는 것이다.

分斷國의 再統合 試圖에 있어 武力에 依한 解決이 아니고 平和的인 解決方法을 扞한 以上, 한 體制가 다른 하나의 體制를 吸收하는것이 아니고 兩體制가 等質化해서 單一體制에로 復歸하는 것이 合理的인 再統一過程이요, 또 이를 뒷바침하는 理念이 今此世紀의 새 政治思想이 될것이다. 그렇다면 結論은 分斷國의 再結合問題는 外政의 優劣에 關係되는 問題가 아니고 國民을 얼마만큼 自由로히 잘 살게 할 수 있느냐 하는 社會政策的인 問題로 歸着된다.

즉 우리政府가 먼저 異質體制 超克的인 諸改革을 통해서 資本主義의 脆弱點을 除去하려고 어느만큼 果敢하느냐에 있고 또 金日成

政權이 얼마만큼 官僚的인 一党独裁를 緩和, 是正하려고 애쓰느냐에 따라 南北 對話는 進展을 갖어올 것이며 統一에의 眞正한 接近이 있을 것이다.

以上에서 筆者는 開放的인 統一政策의 樹立을 爲해 收斂化(Konvergenz)의 一般論을 展開했다. 그러나 壁에 부딪혀있는 南北 對話의 再開를 爲해 提言한다면 다음과 같은 打開方法이 있지않나 한다.

첫째는 우리政府가 여직 지너온 外政面의 強點을 利用해서 北韓을 對話의 再開에 應하지 않을수 없도록 刺戟하는 方法이다. 즉 이것은 지금 우리政府가 取하고 方法이지만 二〇年에 亘한 우리의 유엔外交가 眞正한 善隣外交였다면 今番의 유엔外交에서 그 實을 거둘것이며 그 成果如何에 따라 對話再開의 실마리도 풀릴것이다.

둘째는 政治會談의 基礎段階에 應하겠음을 通報하고 調節委를 改編해서 北韓의 諸提議를 段階的으로 長期間에 걸쳐 受諾 또는 拒否하는 方法이다.

그리고 特히 調節委의 改編에 있어서는 1)調節委의 性格을 民間의 統一協議機構로 規制해 두되, 部門別의 協議가 隨時로 可能토록 同機構를 擴大, 改編하고 關与者도 亦是 部門別의 專門職 人士로 交替하는 方法이다. 2)우리政府의 政策決定 如何에 따라 調節委의 諸會談事務를 南北의 各部處 次官級의 業務로 移讓하는 方法이다. 즉 이 形態는 調節委의 會談이 南北韓의 各該當部處의 關係級 會談으로 變形된 形態인 것이다. 3)東西獨의 境遇처럼 南北韓의 關係級 各一名이 諸會談을 專担하는 形態다.

筆者의 見解로는 위와같은 셋形態의 調節委 改編方法이 있지만 이것은 統一院과 調節委의 實務者가 더 明確한 考案을 갖었으리라 본다.

앞의 四章 다) 欄에서 筆者는 우리社会自体的 社会民主化를 論한바 있지만 結論的으로 筆者가 強調하고 싶은것은 開放的인 統一政策에 直結되는 幅넓은 社会福祉問題다. 韓民族은 까다로운 民族性을 갖었다. 不義에 抗拒하는 강한 勇氣도 없으며 合理的인 公共之事에 積極 同調協力하는 順從도 없이 每事에 非協助이며 我執에 강한 氣質을 갖인 才操있는 百姓이다. 그러기때문에 이러한 國民의 民主化 育成過程에서 " 힘으로 이끄는 " 強力体制가 必要한것도 事實이다.

그러나 民族中興의 기틀을 짜는 強力体制는 健全한 批判을 받을줄 아는 推量이 있어야 하고 젊은 世代를 달래는 寬容이 있어야 하고 衆知를 몽으는 開放性이 있어야 한다. 젊은 世代와 疎外당한 知識層 그리고 가난에 허덕이는 貧民層을 소홀하게 다루는 強力体制는 참으로 國民의 편에서있는 強力体制가 아닌 것이다. 民族分斷의 再結合과 民族中興의 百年大計를 企劃한 強力体制이기 爲해서는 反資本主義的인 思惟傾向에 있는 大多數의 青年, 學生層과 不遇한 知識層의 苦惱를 덜수있는 方向으로 國策을 改革, 施行할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筆者가 主張한 우리社会의 社会民主化이며 또 이것이亦是 對北干係과 四強干係의 改善을 갖어오는 收斂化에로의 內的變換인 것이다. 經濟建設이 이룩되면 豊饒해진 市民社会의 主된 輿論은 分斷의 超克에 集約될 것이다 라는 假想은 誤膠라는 것을 우리는 西

獨의 先例에서 目擊한바있다. 이 過誤를 犯하지 않기 爲해서는 異質體制 超克的인 收斂化作業에 우리의 政策立案者들은 果敢한 決定을 내려야 한다.

英忠壇에 Empire 벨딩이 스기에 앞서서 먼저 구두담기의 不過少年數가 줄어들야 하며 歐美社會의 財閥과 맞스는 民族資本家가 育成되기 以前에 우리는 먼저 巡警이 內務長官을 告發해서 勝訴할 수 있는 밝은 社會, 法治國家를 이룩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民主主義의 正道이며 民族再結合에로의 지름길인 것이다.

- 註 1) 拙稿「韓半島의 統一基盤造成으로서의 集中理論의 適用可能性
与否」를 参照要望(1972年 11月の 国土統一院 研究用役)
- 註 2) Kreis, K.M: Primat der Deutschlandpolitik. In:
Politik and zeitgeschichte, Heft B19/73. S.6f
- 註 3) Siehe.W.S.Schlamm: Die Grenzen des Wunders, Zürich/
1959. S.243
- 註 4) Siehe. Berliner Morgenpost vom 6.Dez. 1964
- 註 5) J.G. Herder: Ideen zur Philosophie der Geschichte
der Menschheit.
- 註 6) O.Spann: Vom Wesen des Volkstums, Wien/1929. S.7ff.
- 註 7) 民族의 特性을 形成하는데 있어 宗教的 要因이 큰 役割을
못한 事例은 우리 韓國에서도 찾을수 있다. 그리고 言語的
要因에 否定的인 態度를 갖는 學者로는 A.Toynhee와 W.
R.Pillsbury를 들수있다. Vgl. A. Toynbee: The new
Eirepe, P.35. And W.R.Pillsbihy: The psychology of
nationality and Internationalism. P.17.
- 註 8) See. Ramsay Muir: Nationalism and Internationali-
sm . P.23
- 註 9) Siehe. System der Soziologie. Band 1.. 1923. S.644
- 註 10) O.Bauer: Nationalitätstheorie and Sozialdemokratie.
S.135. 165. 172
- 註 11) Vgl.K.Jaspers: Der Ursprung und Ziel der Geschichte.
1949. S.35 ff.

- 註12) E.H. Carr: The new society. 1951
- 註13) 이것은 七〇年一月 브란트가 西独議會演說에서 밝힌 「民族의 狀況報告」인데 지금 이 時点까지도 適用되는 内容이다. Siehe dafür den Bericht der Bundesregierung über die Lage der Nation im gespaltenen Deutschland, 14. Januar 1970, Bonn/1970, S.5
- 註14) 이것은 A. Norden의 七二年七月三日에 行한 反帝國主義斗争에 關한 講演中の 民族論이다. Zitiert nach A. Norden, Zum Begriff der Nation, In: Deutschland Archiv, 11/72, S.1233
- 註15) Siehe das Vortragskonzept über den Nationsbegriff aus der Sicht der DDR und der UdSSR von Jens Hacker S.4, gehalten vor der Jahrestagung des Kuratoriums Unteilbares Deutschland, am 26. Nov. 1971 in Berlin.
- 註16) P.C. Lutz: Der Begriff der Nation in der Sicht der SED, S.4, Vortrag an der Jahrestagung des Kuratoriums Unteilbares Deutschland am 26. Nov. 1971 in Berlin.
- 註17) Siehe, G. Schweigler: Nationalstaatsbewusstsein in der DDR, S.31 In: Politik und Zeitgeschichte, B28/1973 (14. Juli 1973)
- 註18) Siehe dafür, Carlo Schmid: Staat und Nation der Deutschen, In: Die Neue Gesellschaft, S.326, Heft

- 5/1972. Und ferner vgl. F. Meinecke, Weltbürger-
tum und Nationalstaat, S.35. Munchen/1963.
- 註19) Vgl.B. Witte: Die deutsche Nation nach dem Grund-
vertrag. In: Europa-Archiv. 7/1973. S.233
- 註20) 前頁의 註15를 参照 要望
- 註21) 第二章의 各欄을 参照 要望
- 註22) M.Klein: Bonner Grundgesetz. 1957. S.34
- 註23) J.Peck: Zum volkerrechtlichen Status der DDR.
Berlin(Ost)/1956. S.7
- 註24) U.Schewer: Die Entwicklung der volkerrechtlichen
Stellung Deutschlands. In: Friedens-Worte, Bd. 51,
S.15
- 註25) Texte zur Deutschlandpolitik IV. Bonn/1970. S.9ff.
- 註26) Texte zur Deutschlandpolitik IV. S.201 ff.
- 註27) Texte zur Deutschlandpolitik V. S.100 ff.
- 註28) Bulletin des Presseamts vom 28.12.1972. Nr.172.
S.2020ff.
- 註29) Siehe dafür H.H.Mahnke: Die beiden deutschen
Staaten in UNO. In: Vereinte Nationen. 1973. 4/73.
S.114
- 註30) R.Aron: Die industrielle Gesellschaft. Frankfurt/
1964

- 註31) W.S. Buckingham: Theoretical Economic System.
A Comparative Analysis. New York/1958.
- 註32) P.A. Sorokin: Soziologische und Kulturelle Annah-
rungen zwischen den Vereinigten Staaten und der
Sowjetunion. in: Zeitschrift für Politik. Heft 4.,
Köln/1960
- 註33) J. Tinbergen: Do Communist and Free Economies Show
a Converging Pattern?. in: Soviet. 4/1961
- 註34) H. Heimann: Überwindung der Spaltung Europas und
Deutschlands durch demokratischen Sozialismus,
in: Politik und Zeitgeschichte, Heft B20/73(19.5.
1973). S. 29
- 35) 앞에 紹介한 収斂理論家들 中에서도 Rostow의 段階說的
立場과는 좀 달리 體制의 接近에서는 兩體制에 다 같은
變化가 일한다고 主張하는 學者가 J. Tinbergen과 P.A.
Sorokin이다.
- 註36) Siehe dafür H. Heimann: Demokratischer Sozialismus in
Ost und West. in: Politik und Zeitgeschichte,
Heft B36-37/71. S. 14
- 註37) K. Jaspers: Ursprung und Ziel der Geschichte.
1949. S. 255ff.